



SEOUL NATIONAL UNIVERSITY

U.S. ALUMNI NEWS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보
www.snuaa.org / news@snuaa.org



제321호 2021년 1월 SNU Alumni Asso. USA | 158-14 Northern Blvd. 2nd Fl., Suite UL-2 Flushing, NY 11358 | Tel: 718-463-3131 | 발행인: 신응남 편집인: 오치주



Happy New Year
謹賀新年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동문여러분과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
는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제5대 신응남 회장 & 임원 일동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뉴욕

신응남 회장 신년사

2021년 辛丑年 새해를 맞으며



근하신년!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동문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해에는 우리 모두 예기치 못한 어려운 재난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 자유로운 만남과 대면 교제를 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고, 이제 희망찬 2021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지난 일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도전을 받았지만 그로부터 승리하여 오늘에 이르른 것입니다.

미주 동창회는 지난 8월 팬데믹 중에도 지

금까지 30여년을 꾸준히 지속해 온 전국 평의원 회의를 온, 오프라인을 통하여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고난 중에도 창의적인 도전을 통하여, 우리 서울대인들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아놀드 토인비가 말하는,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라는 말을 절실하게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미주동창회는 그간 26개 지부의 협조로, 동창회 데이터 베이스에 누락되어 있었던 새로운 동문 1,600명을 발굴하여 추가했습니다. 더하여, 매달 동창회보를 지속적으로 월 초에 받게 하여, 더 많은 동문들로 부터 격려와 후원을 이끌어내며, 소통과 화합의 광장을 확장해왔습니다.

이어서, 전임 회기에서 시작한 미주동창회 재정자립을 위한 센추리 파운데이션 3백만불 모금 릴레이 운동을 펼쳐서, 현재 임기 내 총 33명의 종신이사를 영입했고 12만불을 추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남은 임기기간에도 미전역 동문들과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오는 6월

제30차 평의원회의 개최 뿐만아니라, 3월 경에는 BNT 세미나 개최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침내 FDA 승인을 받아 백신접종이 시작되는 날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일년 동안 동문 각종 행사들이 중단되고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있으나, 온라인 만으로는 해결되지 못하는 만남의 갈증을 모두 공유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헬라어에 시간을 나타내는 두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Chronos),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Kairos)입니다. Chronos는 단순히 흘러가 버리는 자연적인 시간, 즉 달력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Kairos는 의식적이고 주관적인 시간,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하는 결단의 시간을 말합니다. 오늘은 어제의 연속이 아니라, 새로운 하루라는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은 바람처럼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의 의미는 우리 각자의 생각과 행

동에 따라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새로운 비전을 품고 후배 양성, 인재 발굴 및 지원, 경영 현실화 운동, 더 나아가 동창 회관 건립 등의 큰 꿈을 바라보며 동문 여러분과 함께 채워가는 Kairos의 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주동창회 동문 여러분!

2021년 소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6월이 되면 30차 전국평의원 회의가 개최됩니다. 동문여러분 필히 참석하셔서 반가운 소통의 장, 단합의 장을 펼치며 전통을 잇고 빛나는 역사를 함께 써내려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장 신응남
2021년 1월 1일 뉴욕에서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113

미주동창회 유지, 성장 위하여 동문여러분의 참여, 후원 요청!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1년: \$75 / 2년: \$150 / 후원금: \$100 ↑

PAYABLE TO SNUAA-USA 아래의 주소로 회비 납부 바랍니다

SNU ALUMNI ASSOCIATION USA |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조국과 인류발전 기여에 책임 다하길”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

서울대학교 재학생, 동문 그리고 미주 동창회 동문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일년 전에 했던 2020년 신년사에서 서울대학교 구성원들 모두 우리가 맞닥뜨린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실천하자고 하면서, 이런 과정에서 세상에 대한 책임과 이웃에 대한 공감을 잃지 말자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일년 동안 이런 노력과 실행이 얼마나 잘 추진되었는가를 반추해 보았는데, 미진한 점이 많았습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니,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다 하는 것도 이웃과 공감하는 일도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 소셜 미디어에서 2020년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 하나를 꼽아보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답이 ‘대체 왜’ ‘전례 없는’ ‘고통’ 등 이었다고 합니다. 대체 왜 이런 전례없는 팬데믹이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었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일 겁니다. 팬데믹이 진행되는 동안 서울대학교에서는 인류가 직면한 재난을 하루라도 빨리 극복하는데 힘을 보태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이런 상황이 더 나빠지면서 2021년 새해를 맞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냥 움추릴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재난은 하나의 세계의 파괴이고 끝이지만 동시에 다른 세계의 시작이고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번 팬데믹에서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의료 활동을 수행한 의료진들은 물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 임대료를 낮춰서 상인들의 고통을 분담했던 사람들, 힘들고 외롭지만 격려 지침을 잘 준수했던 시민들은 우리가 서로 공감으로 연결된 세상에서 살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울대학교도 짧게 끝나지 않을 재난의 터널을 함께 지나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모으는데 보탬이 되고자, SNU 국가전략위원회와 데이비드 기반 코로나19 사회 연구팀을 중심으로

6개월 간 비대면 컨퍼런스와 강연을 일반에게 공개하며 팬데믹에 대한 과학, 의학, 역학 데이터, 사회, 인권, 철학을 망라한 지식 공유에 앞장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학교가 우리 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팬데믹이 미래를 앞당겼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재난 가운데서도 여러 비상조치들을 긴급히 개발하고 사용했으며 그 중에는 놀라운 결과를 낳은 것도 꽤 있었습니다. 교실에서 학생을 만나지 못하고 학회에서 동료 학자를 만날 수 없게 되자 다양한 정보기술을 이용한 웹클래스, 웨бина, 줌 컨퍼런스가 열렸고, 이런 새로운 소통의 공간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그동안 높았던 학회의 벽을 낮추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의 적극적 협조로 다행히 서울대학교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큰 사고 없이 2020년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이 어떤 해가 될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생명공학, 정보기술, 데이터과학, 인공지능 같은 첨단 기술이 대학과 사회의 변혁을 더 가속화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을 더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주고, 그 속에서 인간의 책임을 고양하는 방식으로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필요성도 더 고조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4차 산업혁명 이상의 큰 변혁이 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의 구성원들 모두 새해에 이대변혁을 수행하는 책임감 있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한국 사회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인류 사회에 기여하며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면 합니다.

서울대학교 동문 여러분. 팬데믹과의 긴 싸움에서 지치지 않고 활력과 안면을 유지하시면서 건강한 미래를 앞당기는 노력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웃을 돌아보며 사회와 공감하는 노력도 계속해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소외된 사람 없이 함께 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합시다.

2021년에는 우리가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을 다스릴 수 있게 되고 캠퍼스에서 교수와 학생들이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 때 관악 캠퍼스를 뺀 막은 서울대학교 동문 여러분 모두를 위한 즐거운 축제의 마당을 열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서울대학교 동문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란한 새희망의 태양을 맞이할때”



이희범 (서울대 총동창회장)

존경하는 서울대학교 미주총동창회 신응남 회장님! 노명호 차기 회장님과 미주 전역에 계시는 모교 동문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경자년이 가고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과 의욕에 가득 찬 새해를 맞이하여 먼저 1만여 미주 동문 여러분 가정마다 만복이 깃들고, 하시는 모든 일에 커다란 발전이 있으시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2020년은 지구촌의 모든 인류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한 해를 보냈으나, 많은 동문들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본회가 계획한 여러 사업은 꾸준히,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6월 취임 당시 저는 ‘평생 학습하는 동창회’, ‘취미를 살리면서 함께 즐기는 동창회’, ‘회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동창회’,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동창회’ 등 4개의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평생 학습하는 동창회’를 모토로 매월 둘째주 목요일엔 조찬포럼을, 넷째주 수요일엔 수요특강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최재봉 성균관대 교수, 양돈선 박사(전 독일 재경관), 김난도 서울대 교수, 박승준 최종현학술원 자문위원 등이 경제·외교·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안을 들려줍니다. 올해는 IT산업의 성공신화, 원로선배의 인생 스토리, 한미 및 한·일 외교 관계, 우리 고전과 한류 등 다양한 내용을 주제로 학습의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취미를 살리면서 함께 즐기는 동창회’를 위해서 골프대회, 등산대회, 국도문화기행 등의 행사를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연기된 동문 바둑대회도 올해는 개최할 예정입니다. 취미 모임은 동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지원하는 개방적인 형태를 띠어, 모임별로 회장 또는 간사를 위촉하였습니다. 불링, 당구모임의 결성도 준비 중입니다. 회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동창회를 위해 국내 병원호텔펜션리조트 등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건강검진은 전국 24개 병원에서 최대 50%까지 우

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더케이호텔 앤 리조트, 엠베서더 호텔 그룹, 라마다 군산 호텔, 하늘계곡연수펜션 등 이용시, 약정에 따라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해외 거주 동문들도 실물 또는 모바일로 회원우대증을 발급받으시면, 국교 방문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회 사회공헌 활동의 방향과 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사회공헌위원회가 최근 출범했습니다.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동창회의 실현을 위해서 입니다. 10억원 모금을 목표로, 동문을 비롯한 국내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류진 풍산 회장이 회의 첫날 1억원 기부 의사를 밝혀 주셨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동문, 625 참전용사 후손, 취약계층 어린이 등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분야는 많습니다.

이에 앞서 ‘회칙개정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회장 임기, 회장 선출 방법 등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시대 현실과 동떨어진 일부 회칙을 보다 합리적이고 매끄럽게 개정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이 마련되면 동문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또한 밝을 예정입니다. 자랑스러운 모교의 동반자로서 연구와 교육을 지원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 지난해 총 1,280명의 재학생에게 34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고, 젊은 교수들이 도전적인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COVID 19의 위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미국은 역시 세계의 지도자로서 Pfizer를 필두로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백신과 함께 치료제도 개발될 것으로 믿습니다. 유례없는 감염병 위험 속에서 미주동창회와 동문들의 지혜는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개최된 평의원회를 통해 동문들의 총의를 모았고, 동문들의 성공으로 마스크를 구입해 뉴욕의 의료진에게 전달했습니다. 미주동창회의 이와 같은 업적은 43만 서울대인 모두의 자랑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미주 평의원회에 참석 못해 무척 아쉬웠는데, 올 6월 평의원회에는 약속하여 자랑스러운 여러분들의 얼굴 뵈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미주 동문 여러분! 동를 무릅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닥친 엄혹한 시련 속에서, 머지않아 다가올 아침을 예감하게 됩니다. 찬란히 떠오르는 새 희망의 태양을, 동문 여러분과 함께 맞이하겠습니다. 서울대인이라는 자부심 속에 새해를 위해 국내 병원호텔펜션리조트 등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건강검진은 전국 24개 병원에서 최대 50%까지 우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에 역할 다하길”



이병준 (3대 미주동창회장)

우리를 모두 옹호하는 COVID-19 Pandemic으로 정신적, 물질적으로 힘들었던 한해였습니다. 오랜시간 후 드디어 백신 생산의 기쁜 소식과 함께 희망의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8세기 영국 스코틀랜드의 역사철학자 토마스 카라일 (Thomas Carlyle)의 많은 명언 중 “가난을 이기는 자가 백 명이면 풍요를 이기는 자는 한 명도 안된다”는 말이 새삼 생각납니다. 풍요, 평탄 속에서 타락하여 불행해지기가 어려움을 극복하기보다 더 쉽다는 이야기지요. 이미 지난 시간은 힘들었지만 잘 이겨내온 자신감과 깨우침으로 희망의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보가 오랫동안 충실하고 균형있는 내용으로 계속 발간되어 거의 8천명의 동문들이 애독하는 간행물이 되기까지 기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한 단체가 장

기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지향목표가 뚜렷하고 참여회원들이 상호존중되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나의 후임이었던 오인석 4대 회장님의 당시 특별한 사정으로 2년 임기를 두 번 맡아 봉사하신 이외에는 모두 2년 임기로 열 세분과 현재 신응남 회장님이 헌신하셨고 또 봉사하고 계십니다. 역대 회장님마다 나름대로 개인 명예나 공적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자기 사명을 다하셨기에 미주 동창회가 지금까지 우리 동문들의 자부심을 지키며 사랑 받아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가의 수행법 중 수일우조 천리(守一隅 照千里)라는 말이 있는데 한 모퉁이를 지키면 천리를 밝힌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한사람 한사람이 자신의 직분을 다하면 머지않아 천리를 비추게 되어 세상이 좋아진다는 이야기지요.

우선 우리들 자존심의 상징인 재미서울대신문의 경제 자립을 위해 각자의 몫을 다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생업이나 학업이 비록 내세울 바 못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각자 처한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새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문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위에 행운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더욱 단단해진 한 해가 되길”



안우성 (미주 의대 동창회장)

새 학년은 전미주 동창회 동문 여러분, 질병의 어려움 속에서 아직도 전 세계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미주 의대 동창들을 대신하여 현장에서 환자 치료와 예방을 위하여 일선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밤낮으로 수고가 많은 의사, 간호사, 약사 모든 의료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은 험난했던 기억을 지워버리시며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오는 2021년 황소의 해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지난 1년간 유례 없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회복을 정시에 발현하고 모든 행사가 최선을 다하신 신응남 미주 서울대 총동창회장님과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정신과 육체가 죽어 이 질병으로 고생 하시거나 세상을 떠난 분들도 많은 것을 알고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2019년 4월에 개최하려던 미주서울의

대 학술대회도 취소되었지만 2021년 후반기에는 예전과 같이 개최희망을 가져 봅니다.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정치적으로 불안 상황이 해소되고 개인들의 건강과 안위가 걱정되는 이 상황을 이겨내면, 비 온 뒤 땅이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안정을 되찾고 평화로운 생활을 되찾을 것으로 믿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은 미국에 국한 된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주 서울대학 모든 동문들께서는 모쪼록 건강 수칙을 잘 지키시고 무사히 이 고비를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의 힘들었던 기억을 지워버리시며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오는 2021년 황소의 해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지난 1년간 유례 없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회복을 정시에 발현하고 모든 행사가 최선을 다하신 신응남 미주 서울대 총동창회장님과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정신과 육체가 죽어 이 질병으로 고생 하시거나 세상을 떠난 분들도 많은 것을 알고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2019년 4월에 개최하려던 미주서울의

대 학술대회도 취소되었지만 2021년 후반기에는 예전과 같이 개최희망을 가져 봅니다.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정치적으로 불안 상황이 해소되고 개인들의 건강과 안위가 걱정되는 이 상황을 이겨내면, 비 온 뒤 땅이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안정을 되찾고 평화로운 생활을 되찾을 것으로 믿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은 미국에 국한 된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주 서울대학 모든 동문들께서는 모쪼록 건강 수칙을 잘 지키시고 무사히 이 고비를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의 힘들었던 기억을 지워버리시며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오는 2021년 황소의 해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지난 1년간 유례 없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회복을 정시에 발현하고 모든 행사가 최선을 다하신 신응남 미주 서울대 총동창회장님과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정신과 육체가 죽어 이 질병으로 고생 하시거나 세상을 떠난 분들도 많은 것을 알고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2019년 4월에 개최하려던 미주서울의

“COVID-19을 잊을 한 해가 되기를”



노명호 (미주동창회 차기회장)

백신들이 속히 공급되고 내년 4월경이 되면 우리생활이 많이 정상화 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미주동문들에게 새해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신축년 소띠해를 맞이하여 서울대 미주동문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2020년에 계획했던 일들을 포함해서 많은 꿈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2021년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은 백신 Distribution 포함 Corona Pandemic을 완전히 퇴치하는 일도 혼란스럽고 불안한 정치 경제 상황으로 가능하기 쉽지 않은 한해가 되지않을가도 생각 해봅니다. 하지만 저는 Virus 공포를 떨치고 미웠던

계획들을 실천에 옮길수있는 새해를 생각 하면 가슴이 뻘뻘합니다. 동문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에는 30차 평의원회의가 6월25일부터 27일까지 남가주에서 열립니다. 내년 6월이면 Hotel Conference도 가능하지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회의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내년 6월 30차 평의원회의는 모든 평의원님들, 모교총장님과 모교 동창회위원장님들, 또 많은 미주동문들이 남가주에 모여 Corona Virus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축하하는 Party를 열 계획입니다.

저의 16 대 미주동창회장님기가 2021년 7월1일 시작됩니다. 여러번 말씀드린대로 저는 미주동창회의 세대교체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16대 집행부에는 80학번 90학번 동문들이 많이 참여할 것입니다. 물론 전회장님들과 또 지금까지 동창회에 열심히 관여해오신 선배 동문님들의 활동도 독려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주동창회 및 각지역동창회가 젊은연령대를 위한 Program들을 개발, 실천하도록 홍보 후원하는 미주동창회가 되도록 노력할것입니다. 미주동문여러분 다시 새해 인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무엇보다도 많이 웃으시는 2021년 신축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더우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백신의 개발로 pandemic이 종료될 기미가 엿보이고 있는 것은 얼마나 큰 희망인지요. 올해는 아마도 큰 도약의 해가 될 것입니다. 모든 일상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경제가 급상승하고, 정치적 안정이 정착되는 해가 될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동안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던 친구 친지 동문님들을 전과 같이 기쁘게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위기속에서, 축복의 땅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할것입니다. 또한, 이 축복과 기회의 땅에서, 서울대 동문이라는 정신적 유대감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미국땅에서 강한 정신적 유대감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울대 동문이라는 정신적 유대감을 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감은 위기의 때마다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희망찬 2021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동문님들은 독수리가 비상하듯이 힘차게 재도약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문님들의 가정과 직장에 평안과 하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은 큰 도약의 해로”



최재울 (미주 수의대 동창회장)

더우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백신의 개발로 pandemic이 종료될 기미가 엿보이고 있는 것은 얼마나 큰 희망인지요. 올해는 아마도 큰 도약의 해가 될 것입니다. 모든 일상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경제가 급상승하고, 정치적 안정이 정착되는 해가 될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동안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던 친구 친지 동문님들을 전과 같이 기쁘게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위기속에서, 축복의 땅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할것입니다. 또한, 이 축복과 기회의 땅에서, 서울대 동문이라는 정신적 유대감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미국땅에서 강한 정신적 유대감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울대 동문이라는 정신적 유대감을 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감은 위기의 때마다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희망찬 2021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동문님들은 독수리가 비상하듯이 힘차게 재도약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문님들의 가정과 직장에 평안과 하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더우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백신의 개발로 pandemic이 종료될 기미가 엿보이고 있는 것은 얼마나 큰 희망인지요. 올해는 아마도 큰 도약의 해가 될 것입니다. 모든 일상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경제가 급상승하고, 정치적 안정이 정착되는 해가 될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동안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던 친구 친지 동문님들을 전과 같이 기쁘게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위기속에서, 축복의 땅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할것입니다. 또한, 이 축복과 기회의 땅에서, 서울대 동문이라는 정신적 유대감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미국땅에서 강한 정신적 유대감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울대 동문이라는 정신적 유대감을 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감은 위기의 때마다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희망찬 2021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동문님들은 독수리가 비상하듯이 힘차게 재도약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문님들의 가정과 직장에 평안과 하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김해암(의대 52)

/ 정치·외교 칼럼 /

미국의 대선을 뒤로 하면서

한국의 현대적 외교를 검토 해본다면 당연히 전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반기문씨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반 총장의 외교술은 세계적으로 인정 받았으니 당연히 한국의 외교 수준이 그분의 전통을 이어 가리라 짐작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른 것 같다. 반기문 외교는 UN이라는 거대한 기반 위에서 이루어 질 수 있었다면 대한민국의 현실은 너무나 제한된 조건에 매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대선이 끝난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하는가? 자문 한다면, 지금이 기회니, 활동을 벌여야 할 때는 지금이라는 생각이 있을 것이다.

남한이 미국을 70년 이상을 다루었으니 미국의 외교를 세계의 어느 나라 보다도 잘 이해하는 나라라고 자찬 할 수 있을지 모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왜, 그러할까 생각해 보자.

1) 한국은 1948년에 독립을 했으나 미국의 경제 및 군사원조에 의존하며 지탱 해오다가 625가 발생했다. 마소 냉전의 희생이 되었으나, 그런 사실을 인정하기보다 한국사람들은 통일을 하려고 동족 전쟁을 했다고 믿고 있다.

2) 현재도 남북 외교는 상대편을 희생해서라도 통일을 하려면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 세계정세나 아시아의 상황을 다이나믹하게 다루기 보다는 미국의 외교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에 바빴다. 왜 그랬나? 정치 군사원조가 아닌 동맹국이라는 조약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

3) 미국은 현 트럼프 대통령이 잘 터 놓고 말 해왔듯이 미국의 권익과 이해관계를 먼저 따지는 나라이지 자유, 평등을 위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즉 민주주의 이상을 살려내려고 싸움을 하는 나라는 아님을 우리는 늦게나마 인식하게 되었다.

4) 북한과의 핵무기 교섭, 이란과의 협상하여 만든 조약을 일방적으로 폐기해 버리는 것을 보면 미국의 본심은 세계 최대 강국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비밀 협상, 구실을 조작해서하는 전략을 버리고 내 놓고 타협하는 외교로 변했다고 생각하면 한국같은 나라에는 도움이 된다.

5) 현재에 벌어지고 있는 외교는 내놓고 단판하여 조속한 결과를 가져오려는 것에 역점을 두고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Northern Ireland의 경우를 들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권 대사로 임명되어 현지에 가서 Brexit 협상 상황을 조사하면서 미국의 역할이 어떻게 적용되며 영국과 EU의 국경을 어떻게 분쟁없이 유지 하느냐를 다루는 외교를 펼친바 있다.

Brexit 협상이 조약으로 체결되기 전에 벌써부터 애관 북애관 영국 등 정무간의 태도와 조건, 입장 등을 연구하여 대처해 가고 있다. Mick Mulvaney의 능숙한 외교 솜씨를 보면

내 놓고 다 방면 협상을 해나가는 것을 video를 통해 관중에게 내 놓고 소개하고있다. 우리도 남북한의 교섭을 그들이 하는 방법으로 해 봤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나는 외교에는 문외한 이나 반기문 총장 때 다른 일로 UN 본부에 이따금 드나드는 기회를 경험 하면서 외교관 현대에 와서 외교관들 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 나는 10여년 전에 맨하탄 72가에 있는 Marymount Manhattan College, Adult Program에서 동양학과 정신건강에 대한 강의를 수년간 자원 봉사 한적이 있었다. 그 연고로 6년전에 북한에 대한 강의를 한 학기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Columbia 대학 정치학 교수였던 Prof. Bruce

북한은 노련한 외교관들이 계속 중요한 자리를 차지함을 보아 왔다.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에 장단점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뚜렷한 목적의식과 성취욕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남들이 알아서 우리의 사정을 돌보며 해결해 주기를 무의식으라고도 바래서는 안되겠다. 그러면 우리의 남북문제를 생각해 보자. 해방 후에 대한민국 수립을 어렵게 얻었는데 이승만 박사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주장했고, 김구, 여운영 씨등 남북협상으로 통일을 이루자 했으나 비극으로 끝내 버렸는데, 왜 그런 허무한 외교를 했던가? 될수 없는 일을 무리하게 끌고 나가면 화를 만나는데, 되도록이면 충돌을 피하고 전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현대

미 대선 끝난 직후 지금이 외교전 펼칠 때

한반도가 하나의 강대국으로 성장할 기회

남북관계, 우리가 직접 풀어나가야 할 문제

Smith를 초청했다. Bruce는 미국 Bill Clinton 대통령(1993-2001) 시대에 외무부에서 아세아 담당 보좌관으로 있었고 한국 애호가 이다. 자기 아들이 애가 없어 양자를 한국에서 데려오려고 오래 애쓰다 못하고 결국에는 남미 Colombia에서 데려 온 영국계 미국인이다. 10여년 사귀는 사이인데도 할 말 못 할말을 가려서 하는 조심스런 친구다. “왜 한국 애를 꼭 갖고 싶으냐?” 하는 질문에 “동양 여러나라 문화를 공부하다 보니 한국이 제일 좋더라” 라고 할 뿐, 더 물어도 대답이 없었다. 또 북한에 대한 강의 중에도 북한에 대한 자료는 나보다 훨씬 많아도 내가 어려서 살아본 경험을 받아 드리려 않고 자기 자료에 의거한 증거물론만 판단의 기준을 삼으려는 데는 두손 들었고, 설득은 불가능했다. 마침내 나는 화를 내며 “왜 너 개인으로 써 의견도 말하면 재미 있을텐데 왜 그러지?” 했더니, 자기가 정부 직장을 그만둘 때 전서하고 약속한 것 때문이지, 개인적 불만이 있어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당부하였다.

이 경험을 통하여 미국의 외교관의 훈련이 얼마나 철저한가를 배울 수 있었다. 돌이켜보면 한국의 문제는 우리가 더 잘 알지 남이 알아서 우리 문제를 해결 해 주기를 바라는 우를 저질러서는 절대로 안되겠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미국과 북한의 핵 협상을 보더라도 미국은 정부가 갈리고 책임자가 갈리면 외교전은 그대로 있더라도 협상감도가 달라지는데

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외교술을 익히는데 있지 않나 생각해 본다. Northern Ireland의 교섭에서 Mick Mulvaney는 이런 공식을 끌어 들였다. 모든 협상대상자들은 각기 자기편의 최대의 이익, 편이 그리고 위신을 협상의 위주로 삼는데 미국이 왜 3차 협상에 끼여 드느냐 하는 것이다. 미국은 영국, 애관 그리고 EU권을 모두 만족시키는 대안을 찾아보려 할 뿐이고 간섭 일량 아랑곳 없는 것이라 했다.

미국은 Northern Ireland를 부유한 지역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주장한 듯하다. 그 어느 편도 새로운 국경의 담을 쌓는 것에 혐오를 느낀다 했으니 Brexit로 북 애관인 경제적으로 뜨게 될 가능성이 풍부하다. 물론 시험 해 보고 불리해 지는 편이 문제를 일으키려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성공적이다. 남북한의 경우에도 모두가 잘되고 이득을 보는 공식을 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한데 주변의 강대국들이 해 줄리는 만무하니 우리끼리 서로 이익이 되는 공식을 끌어내고 강대국들을 설득하여 남북한이 함께 강대국이 되는 길은 반드시 있을 법 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체제를 최대한으로 유지하면서 남북한이 외교의 동행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결코 불가능 할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다음은 기회를 잡아들이는 것인데 세계의 새 질서가 잡히기 전에 남북한이 비밀리에

라도 협상을 벌리는 것이 상책일듯하다. 보수와 진보파들이 극단으로 흐르며 방어 공격 태세를 잡던 미 대선 중의 힐난을 지양하고 서로의 이익을 찾아야 할 때라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문제를 바로 보고 해결해 가는 외교 및 협상으로 이끌어 감이 있어야겠다. 우리 세대는 정보공유, 통신 가속화의 시대로, 우리모두가 외교관이 되고 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세상에 사니까 시공간을 넘어서라도 남북문제 해결에 총력을 길러 보아야 할듯하다. 한반도가 하나의 강대국으로 진출 할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역사에 나오고 군가에서 부르든 “남이 장군”의 꿈을 이루어 보자.

오늘 워싱턴 포스트 지는 미국 하원에서 한미동맹 강화안을 미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고 보도했다. 대선 후에 시기를 타고 한국의 외교단과 여당의원단이 대거 대미 외교를 벌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한다. 앞으로 세계는 한국외교의 움직임을 주시하리라 사료된다. 세계의 몇 안되는 분단국가들은 어떻게 하던 무기든 분쟁을 넘어서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에 전쟁터가 된 아자바잔과 아르메니아의 경우를 보더라도 당사자들이 못하고 주변 강대국들이 개입하여 러시아가 앞으로 4년간 중개 역할을 한다고 전한다. 역시 외교의 힘이 부족한 것으로 봐야한다. 21세기의 외교는 강대국들에게 맡길 것이다 아니라 당사자들이 직접 해결하는 방법을 창출해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싸이프라스의 동서분단, 인도와 중국 국경의 문제, 북 애관의 분단 등이 폭동, 폭발 전, 총격전등 수습년을 하다 겨우 수습되어 소강 상태를 이루고 있다. 한국의 남북 문제는 세계의 제일 큰 분단의 예가 되므로 그 해결책은 노벨상이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Northern Ireland의 분쟁을 보더라도 1968에 일어난 총격전이 30년을 끌다 1998년에 미국의 George Mitchell 대사의 외교로 수습이 되어 3,600여명의 사상자와 3만여명의 부상자를 낸 분쟁을 마무리 한 것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경문제 등도 외교의 힘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한국의 경우에 미국이 사는 한인들도 적극 한국을 도와 하루 바빠 한인족의 외교적 노력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 하도록 노력해 보자.

정치학과 말고 외교학을 배운 적도 없는 내가 이런 글을 쓴다는 자체가 물음처 하다는 느낌이 있다. 다만 미국에 1950년대 말에 군복무를 마치고 와서 미국을 배우고 공부 해 온 정신과 의사로서 어떻게 조국과 한반도의 살길을 찾나 하는 집념에서 이글을 적었음을 말씀 드리고 전문가들의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 시사칼럼 /

4.19 세대가 본 시위문화

촛불시위, 촛불혁명과 시카고 폭동



홍성용(상대 58)

<시작하며>

현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을 계승한다고 선언하였다. 짐작컨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혁명은 촛불시위에서 시작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부각시키려는 의도같다. 몇년 전 광화문 광장에서 공연을 즐기고 촛불을 흔들며 구호를 외치던 군중들은 밝은 표정들이었다. 젊은 남녀 커플들과 부모를 따라 나온 꼬마들 모습, 아기가 탄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부부의 모습은 밝고 여유로워 보였다. 마치 60년대 말 미국 서부 도시에 수천명의 젊은이들이 “머리에는 꽃을, 샌프란시스코”라는 가사의 노래를 부르던 반전시위대의 모습을 연상시켰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오늘 우리 도시들은 그때의 낭만과 여유는 찾기 어렵고 계층과 지역 간의 사회적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국회에서의 여야의 대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행정과 사법부마저 양극화된 대립과 갈등을 보는 국민은 불안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한편 몇년 전에 촛불시위를 하던 시민들은 현 정권이 촛불의 시위의 정신으로 혁명을 이어간다고 공언을 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있을까? 아마 많은 시위자 중에 정의와 자유를 노래하던 낭만적 이상주의자들은, 한편에서 현정권이 주도면밀하게 추진하는 혁명의 흐름을 보고 “우짜 이런 일이라”며 놀라서 할 말을 잊어버린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4.19 세대와 보수주의의 실종>

4.19 학생운동은 우리 역사에 전무후무한 자유민주주의의 신봉자이며 국제 정세를 통찰한 예언자이며 애국자인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아يا하게 만들었다. 십여년 전 4.19 기념회의 부탁으로 4.19를 회고한 적이 있다. 그 때 글을 쓰면서 필자는 4.19는 기록되어야 할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 결과가 자랑스럽게 기념을 할 만한 것이었나에 대해 자문하여 보았다. 60년 전 아득한 기억이지만 3학년 학생대표였던 필자는 그날 준비없이 광고와 연설을 하고 마당에 모여 있던 학생들과 함께 청량리를 거쳐 광화문까지 악을 쓰고 뛰면서 시위하던 기억이 난다. 4.19 세대는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성장 정책을 통하여 특별히 많은 기회가 주어졌던 행운의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우리세대는 1960년대 100불 수준이던 소득이 그 후 60년동안 300배로 폭발하는 꿈같은 성장을 경험했다. 이 세대는 자유로운 시장에서 노력과 창의와 경쟁 그리고 용기를 통해서 우리의 선대가 삼대(三代)에, 아니 삼백년에 걸쳐서도 이루기 어려운 변화를 삼십년만에 이룬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었다. 실제로 땀방삼이하던 이웃이 기업을 일으키고, 그것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가는 것을 본 산 증인들이다. 이를테면 이윤과 이념의 정치(精術)한 허상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쟁이 성장과 배분의 정의

를 가져다준다는 경험을 한 세대이다. 우리는 당당하였고 감사하였다. 단지 우리가 물질적 빈핍(貧乏)에서 벗어나는데 몰입한 나머지 먹고 사는데 만족하였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심어준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노력 없이 자유의 귀중함과 시장경제의 위대함을 후배들에게 전하는데 등한하였다. 이것이 모두 ‘가난이라는 유산 탓’으로 돌리기에는 너무나 중대한 과오였고, 가슴 아픈 결과를 초래하였다.



4년전 정권퇴진을 위한 촛불시위 모습.

전박하고 오만한 혁명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끊임없는 개혁으로 쇄신을 통해서만 유지되는 보수주의의 정신은 보수의 태만으로 쇠락(衰落)하고,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낡은 이념으로 무장한 나이든 운동권이다.

<40세에 보수주의가 아니면>

그 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정책은 자신들이 신봉하고 다져온 색바랜 낡은 정치이념에 치우쳐 있다. 이것은 일부 국민의 지지를 얻는데는 성공하였으나 실재적인 성과를 얻는데 실패하고 있다. 현정부가 어설픈 환경론자들의 주장에 따라 추진한 탈원전 정책, 민족 통일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감행한 국방 안보체계의 훼손, 스스로 국제적 미아의 신세를 자초한 외교 정책, 균형 정책이라는 명목의 토지, 주택 정책과 지역 정책 등은 모두 실패한 정책 사례이다. 현 집권 세력은 오랜동안 사상과 이념적 틀을 굳게 다져왔다. 이념에 치우친 지식인들이 주도한 정책은 시장기능을 왜곡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과 국민 복지의 향상에 찬 물을 끼얹고 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의 어느 정권에서도 이와같이 연속적인 정책 실패는 없었다. 또 어떤 정권도 현 정권처럼 현실적 문제 해결을 경험이 없이 자신들의 지식과 이념의 우월성을 맹신(盲信)하고 정책과 집행을 독점한 정권은 없었다.

따라서 촛불시위가 지향하던 자유와 정의 그리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개방성과 투명성이라는 정당한 절차와 거리가 먼 완고(頑固)한 사상과 이론의 틀로 무장한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부드럽게 펼쳐이던 자유롭고 개방적인 촛불시위의 전주곡 뒤에 이고메니아(egomania)들의 배타적인 주장과 이념적 정책이 판을 벌리고 있다. 지금까지는 반대 여론이나 사상적 혼란이 없는 보수의 불만을 현 집권층의 관심을 돌릴 수 있을 만큼 체계적이지도 조직적이지도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미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전임자 존 아담스의 것이라고 한 다음과 같은 인용구

플에 투자하여 30대초에 거부가 되었다. 와이너와 프로안은 대학에서 화학 교수로 독극물 관리 연구를 하였다. 헤이든은 유명한 할리우드 여배우 제인 폰다가 결혼하여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을 지냈다. 환각제 과다복용으로 57세에 사망한 호프만을 제외하면 평범한 시민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분명한 것은 시카고 폭동의 주역들은 생업에 충실한 평범한 시민으로 살았다. 4.19세대의 몇 사람은 학생운동을 바탕으로 현실 정치에 참여한 분이 몇 사람 있었으나 그 숫자는 손으로 꼽을정도이다. 다만 386세대의 현실 정치 참여는 놀라울 정도로 많다. 그 동안 30여년간에도 그랬지만 특히 현 정권에 들어와서는 중압과 지방 의회, 사법부와 행정부에 수를 가능할 수 없이 많은 것이 특이한 일이다.

<끝으로>

우리 사회는 지난 몇년간 양극화되었고, 그 대립은 시간이 갈수록 첨예화되어가고 있다. 현정권은 화석화 된 이념을 가지고 적폐 청산에 나섰다. 그러나 그들이 간파하는 것은 과거는 정제된 것이고, 적폐 청산에 매달리는 동안 스스로가 화석화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금 그들은 바로 청산되어야 하는 적폐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중대한 실책은 이들은 과거 적폐의 청산 과정에서 위대한 인류의 유산인 자유 자본주의를 훼손한 것이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새로운 극우보수 집단을 형성하여도 좋은 토양이 된다. 건국 후 세워진 자유민주주의의 전통과 체제가 훼손되어 무기력해지면 과격한 혁명세력에 걸맞는 극단적 이념과 투쟁적인 조직을 갖춘 보수집단이 출현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좌우의 극한대립을 몰고 올 것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피해야 할 상황이다. 그 결과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좌우 노소를 막론하고 이와 같은 파국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모색하여야 한다. 닉슨의 경제고문인 경제학자 스타인(Herbert Stein)은 “78세에도 자신을 보수주의자(conservative)나 자유주의자(liberal)로 자처한다면 그자는 꼭 막힌 자이고 자신의 편향성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많은 우리 4.19 세대는 벌써 80을 넘었다. 그러나 나이에 가서야 깨닫는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시카고 폭동의 주역들>

4.19와 386세대의 시위, 그리고 시카고 폭동 이 발생한 원인이나 시대와 정치 사회적 배경은 다르다. 그러나 이 사건들의 핵심 인사들의 인생행로를 들여다 보는 것은 필자의 호기심을 위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를 주도한 인물들의 인생행로를 살펴 보면 흥미있는 사실을 발견한다. 한국의 4.19 이후 8년이 지난 1968년 흑인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피살이 도화선이 되어 미국 전역에서 반전 및 소수민족 차별 반대 시위와 폭동이 일어났다. 특히 민주당 전당 대회가 열린 시카고에서는 격렬한 시위가 있었다. 시위기간 이들 중에 2,150명이 체포되었고, 사망자 11, 그리고 5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들 시카고 시위 주동자들이 젊은 날에 가졌던 이상과 열정을 훗날 산업의 경쟁력과 국민 복지의 향상에 찬 물을 끼얹고 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의 어느 정권에서도 이와같이 연속적인 정책 실패는 없었다. 또 어떤 정권도 현 정권처럼 현실적 문제 해결을 경험이 없이 자신들의 지식과 이념의 우월성을 맹신(盲信)하고 정책과 집행을 독점한 정권은 없었다.

우리는 ‘점진적인 개혁을 지향하는 보수와’ 혁명적인 개혁을 지향한다는 자유주의는 둘이 아닌 하나로 연결되는 좌표로서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념이 아닌 현실의 세계에서 국민의 복지와 행복의 해법은 양극단에서가 아니라 양쪽의 장점을 균형있게 조합하는 위치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집체주의와 계급독재는 근원적으로 차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미네소타 지부 온라인 연말총회

차기회장 차재호 동문 인준

차차기 회장에 응정식 동문

서울대 미네소타 지부 연말 총회가 지난 12월 11일 (금) 오후 7시 부터Zoom 을 통한 모임으로 모두 25명의 동문이 참가하여 박상욱 교수의 강연과 장학금 증정 및 경품 추첨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상세한 설명으로 발표를 하였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는 함대영, 배한결, 김중은, 권오란 동문 등 총 4명에게 장학금이 각각 1,000달러 씩 수여되었다. 송창원 (문리 53) 박사의 특별 장학금 지원금으로 더 많은 동문들에게 수여가 될 수 있습다.

이번 연말총회에는 특별히 서울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로 재임 중이시면서 모교방문단을 이끌고 미네소타에 2년간 머무를 예정인 박상욱 교수(화학 91)의 강연이 있었다.

Covid-19으로 위축된 동문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월 1회 실시하고 있는 미네소타 지부 학술 세미나는 지난 9월 응정식 교수 (농화학 86)의 펜다믹: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시작으로 이번이 4회째를 맞고 있다. 박상욱 (화학 91) 교수는 과학 기술 정책에 대하여 미국, 유럽 및 한국과 아시아 국가들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한 연구 결과를 동문들과 공유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다. 냉전기를 통한 미국 대 소련의 과학 기술정책과 냉전 종식 이후에 국가 안보차원의 과학 정책들이 경제 이주로 이동이 되는 전세계적인 현상을

이날 연말 총회를 통해서 차기 회장으로 차재호(농공 84) 그리고 차차기 회장으로 응정식(농화학 86) 동문이 인준 되었고, 김형석 (심리 92) 동문의 감사 업무도 승인이 되었다. 양한승 (임산공학 89), 동문의 사회로 경품추첨이 이어졌다. On Line 추첨판을 활용한 경품 추첨은 많은 동문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특히 장학금 Donation 항목이 즉석에서 추가가 되어 김권식(공대 61), 남세현 (응용화학 67), 황효숙 (사대 65) 동문이 100달러의 장학금을 추가로 더 내주기도 했다. 송세진 (치대 78) 회장과 차재호 (농공 84) 동문의 교기 이양식은 비디오 촬영한 자료를 이용하여 진행을 하였다.

Zoom으로 치뤄진 이번 송년모임은 송세진 (치대 78) 회장의 동문들과 임원진에 대한 감사와 새해 인사로 끝을 맺었다.



송세진 회장(왼쪽)과 차재호 차기회장



장학금 수여



온라인 추첨판을 활용한 경품추첨

종신이사추대



권기홍 (의대 60)

권기홍 동문은 외과전문의 학박사로 캘리포니아 풀러튼에서 활동해왔다. 권 동문은 종신이사비와 나눔기금으로 후원금을 보내왔다 아내 권원미씨와 함께 현대미술과 예술가를 후원하는 콘소트로 LA현대미술관(MOCA)에 500만 달러를 기부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성호 (법대 64)

김성호 동문은 81년에 도미하여 50년 넘게 살아온 아내와 함께 LA에 거주하고 있다. 신경내과의사인 아내와 두명의 아들을 두고 있다. 큰아들은 치과의사로 일하고 있으며 작은 아들은 현재 외국에 거주중이다.



이재희 (치대 67)

이재희 동문은 서울 치대를 졸업 후 1973 도미, 1977년 Dentist, City 시카고 Health Department에서 치과의사로 일했다. 이후 1978년부터 20여년간 일리노이주의 스피링필드에서 치의학 박사로 활동하였고 2000년부터 10년간 일리노이주 Dept. of Human Services에서 재직하였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일리노이주 Belleville에서 치과의사로 활동중이다.



장윤일 (공대 60)

장윤일 동문은 원자력 공학과 졸업후 1965년에 도미, 텍사스 A&M 대학교에서 석사, 미시간 대학교에서 핵공학 박사, 시카고 대학교에서 MBA학위를 받았으며, 1974년 이후 알곤 국립연구소에서 45년간 근무하면서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 이후 장 박사는 공학 담당 부소장,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소장 대리로 근무하였으며, 2008년에 은퇴후 한국 과학기술원(KAIST) 초빙교수, 세계원자력기구 자문 등 계속 원자력 분야에서 활동 하다 2013년에 아르곤에 복직후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 계속 공헌하고 있다. 1994년에는 "일체형 고속로" 개발을 총 지휘한 업적을 인정 받아 미국 원자력계에서 권위있는 로렌스 상을 수상했으며, 그 외에도 미국 원자력학회로부터 시스러 메달, 미시간 대학교 핵공학과로부터 우수 동문상, 서울 대학교 공과대학교로부터 자랑스런 공대인상, 자랑스러운 보성인상, 서울대 총장의 학술부분 공로패 등을 받았다. 시카고 지역 동창회의 이사, 장학금 관리위원장을 거쳐 2020년도 동창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고병은 (문리 55)

고병은 동문은 문리대 물리학과 1959년 졸업, 1959년에 유학과 도미하여 뉴욕시 Columbia University 대학원 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했다. 1981년부터 2년간 모교 공과대학 산업 공학과에 초빙교수로 학부와 대학원에서 봉사했다. 1982년 1학기때는 당시 권이혁 총장(전 서울대 병원장)의 부탁으로 서울대 대학병원의 Modern Management System을 Consultation하는 일을 겪었다. 1969년 미주 한인 과학기술과 협회의 창설 멤버였고 본회의 Charter를 초안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부탁으로 20여명의 과학자들이 워싱턴 DC에 모여서 창설했다. 이는 오늘날 한국의 KAIST의 모태가 되었다. 또한 Columbia University Medical Center System 담당 부원장으로 다년간 근무했다. 현재까지도 서울대 필라델피아 지부의 모범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 SNU 동창회로부터 봉사상도 수상했다. 현재 1남1녀 그리고 6명의 손주가 있다. *여동생 고애자 동문(음대 57)이 오라바니를 위해 X-MAS 선물로 동창회에 종신이사비를 보냈다. 두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종신이사님들의 후원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서울대 미주동창회 -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3백만불 모금 캠페인 Century Foundation

종신이사 참여 릴레이 전개

"다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에서는 재정 자립을 위한 3백만불 모금 캠페인 'Century Foundation'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미주동창회에서는 기금 마련을 위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기금 관리 위원회'를 발족하고 올해 29차 평의원회의를 통해 손재욱 기금 관리위원장을 추대했습니다. 현재까지 참여해 주신 104명의 종신이사님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시고 협조해주신 동문들의 힘으로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굳건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짊어질 새로운 인재들이 동참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역과 커뮤니티 그리고 미국과 한국을 통해 앞으로 큰 영향력을 갖게될 것입니다. 이제, 유지 보수를 위한 모금 캠페인을 넘어서, 세대와 민족을 잇는 인재들을 발굴하고 양성하며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2만여 서울대 미주동문 여러분, 시대적인 사명을 가진 지성인으로서 이 땅에 뿌리내린 삶의 선배로서 큰 비전을 바라보며 함께 뜻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지난해 10월부터 미주동창회 사무실이 소재하는 뉴욕을 중심으로 종신이사 참여 릴레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동문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빛나는 성과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부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 박영국 (미대 66)



박영국(미대 66) 동문이 지난 11월 30일 소천했다. 고 박영국 동문은 남가주 미대 동창회 회장,부회장과 남가주 미술가 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또한 동문들을 위해 미주센터에서 "추상화에 대한 이해" 강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다. 부인과 3년 전 사별하셨고, 슬하에는 세분의 딸이 있다.



(고) 염극용 (의대54)

고 염극용 동문이 지난 12월2일 86세를 일기로 소천했다. 고인은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후 해군 군의관근무를 마치고 도미하여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의 창립과 시무장으로 교회를 섬겼다. 80년도 중반부터 kenya마사이선 교에 헌신하며 그곳에 진료소와 교회건물학교를 세우는 등 봉사 활동을 했다. 유족으로는 미망인 신영희 권사와 1남3녀 등이 있다.

/신간소개/

우리모두 성신, 코스미안이다



이태상(문리 55)

이태상 작가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코스미안' 사상은 우주적 사유의 결과물이다, 미시에서 거시로, 의미에서 완성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로 통합적 비전의 사유이자 진정한 사랑의 원천이며 가슴 뛰는 대로 사는 인간이 주인공이다. 코스미안은 허깨비 같은 비존재의 성인(聖人)이 아니라 저 우주의 수많은 별들과 같은 존재론적인 실상의 성인(聖神)이다. 기존의 사상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사상을 사유하고 만들어낸 이태상 작가는 권위와 근엄을 벗어 던지고, 쉽고 재밌게 부드럽고 진실하게 때론 통쾌하고 명쾌하게 코스미안이 되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앞사람을 추종하지 않고 뒷사람을 제압하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그 방법론은 어렵지 않다.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존귀한 방법은 가슴 뛰는 대로 사

는 것이라고 일갈한다. 우리는 다만 모르고 있을 뿐이다. 우리 자신이 바로 성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코스미안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태상 작가는 이 책을 통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전부인 율한 방울, 모래 한 알, 풀 한 포기 가 곧 나와 다르지 않고 내가 바로 이 우주의 주인이며 우주자나 자신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이 코스미안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순간을 위해 우리는 우주 순례자가 되어 인간의 완전성을 이루어야 한다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다. *이태상 동문은 미주동창회 사무실에 10권의 책을 기증했다. <1230ts@gmail.com>

/시집 소개/

아랑 우순자 시화집 '도전'



우순자(미대 70)

미술가이며 시인인 우순자(미대 70)동문이 글과 그림이 어우러진 첫 시화집 '도전'을 발간했다.



작품집에는 '화가의 고뇌' '도시의 새벽' '달의 미소'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가을 서신' '코스모스' 등 70여편의 시와 함께 책 표지에 사용한 아르헨티나 '도전'을 비롯 '고뇌' '가을 찬미' '도전' '고요한 아침의 나라' '겨울의 고요' 등 50여편의 그림들로 채워져 있다. 우씨는 "살아오는 동안 한참은, 그림과 시가 내 삶의 의미와 큰 목적이 되기도 했지만, 어느덧 그것은 나에게, 사람들을 참마음으로 사랑하는 도구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며 "이 작품들이 누군가의 마음에 닿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출신으로 이화여고, 서울대 미대 서 <soonjacho@thecos.com>

고 김운경 동문 장학기금 쾌척 미망인 김신웅 동문, 고인 뜻 이어 기부

고 김운경 동문(치과대 57)의 3주기를 맞이하여 미망인 김신웅 동문(사범대 59)께서 시카고 동창회 장학사업을 위해 5천달러를 쾌척했다. 고 김운경 동문은 경기고등학교 재학중 625 동안으로 졸업이 늦어졌고 1961년에 치과대학 졸업했으며 보사부 치무과 치무계장으로 근무하며 김신웅 동문과 결혼후 1970년에 시카고로 이민왔다. 뉴욕대학교 치과

대학에서 수학했으며 뉴욕과 일리노이에서 치과 의사 면허를 취득한후 시카고와 노스부룩에서 46년간 치과 개업을 했으며 2013년에 은퇴하였다. 고 김운경 동문은 시카고 동창회를 위하여 이사로서 1993년부터 2005년까지 수고하셨다. 지난 11월 22일 3주기를 맞이하여 김신웅 동문께서 고인의 뜻을 기리며 후학 양성에 보탬이 되도록 그리고 귀한 장학사업이 많은 결실을 맺기를



고 김운경 동문(오른쪽)과 미망인 김신웅 동문.

바라면서 장학 후원금을 쾌척해 주셨다. 이 장학기금 후원금은 "김운경 장학생"의 이름으로 2021년에 선발되는 장학생 중 두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임국희 동문 미변호사시험 합격 <전 헌법재판소 사무관>

임국희 동문(사진, 영어교육학과 92)이 올해 10월 실시된 매사추세츠 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임 동문은 한국 헌법재판소 서기관 출신으로 한국 변호사 자격도 가지고 있어서 한미 양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다. 임 동문은 현재 윌리엄 영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판사의 로 클럭으로 근무하고 있다.



였다. 대기업 업무 경험을 살려 로스쿨에 진학하여 한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 후에는 헌법재판소에 사무관으로 특채되어, 2014년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의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들이 참석한 세계헌법재판회의를 성공시키고, 아시아 헌법재판소연합의 연구사무국의 서울 유치에 기여한 공로로 특별 승진을 하는 등 독특한 경로를 밟아왔다. 2017년 도미 후에는 자녀들과 배우자의 후원 속에 Boston University에서 LL.M 과정을 수료하였고, 이번엔 미국 변호사 자격도 취득하게 되었다.

었다. 임 동문은 미국 도착 초기부터 이강원 전 뉴잉글랜드지구 회장동문(로드아일랜드 주립대, 건설환경토목 66)의 도움으로 뉴잉글랜드 서울대 동문회와 인연을 맺어 여러 동문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미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앞으로 한미 양국의 사법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교류의 법률적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임 동문의 배우자인 김경옥 국방부 물자관리과장도 동문(지리학과 92)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강원 교수가 동문이 소장하고 배우자의 후원 속에 Boston University에서 LL.M 과정을 수료하였고, 이번엔 미국 변호사 자격도 취득하게 되었다.



김자성(의대 79)

/ 삶과 생각 /

2021년을 맞으며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다. 작년 새해 벽두에, Los Angeles, Griffith park 정상에 서울대 동문들과 같이 해맞이 산행을 하며 희망찬 한 해를 시작했다. 순수하게 희망 어린 기분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었다. 그 때는 코비드라는 사태가 이렇게 깊이 전 세계를 흔들리라는 예상은 누구도 하지 못한 채.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맞는 지금, 또 한 해를 살 희망의 근거를 생각해 본다. 아마 처음을 꼽으라면, 우주의 신비가 있다는 것이다. 어느 양자역학자의 글에서 읽은 얘기로, 우주에 11 가지 차원이 있다는 얘기... 일상적인 우리의 우주관은 삼차원 혹은 사차원이 고작인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우주의 신비의 깊이가 깊다는 사실. 그러나 철층 천국이나 하는 그런 신비한 내용이 실재할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신비한 세계에서 태

어나 존재하는 우리들이 가질 바른 자제가 있다면, 우주의 깊은 신비에 대한 신뢰 일 거라고 생각한다. 둘째는, 정신과의사인 Stevenson이 필두로 시작한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 사례 분석연구들에서 나온 시사점이다. 그가 모은 수천 가지 사례 중에서 특히 250여 사례는, 그 아이들이 기억하는 죽음의 방식에 상응하게 출생반점이나 기형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다는 내용이다. 즉 죽을 당시에 정신에 가해진 트라우마가 그 다음 출생에서 몸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인데, 마치 카톨릭 수도사가 보여준다는 낙인(stigmata)의 기전과 비슷하다는 설명. 그 연구가 시사해 주는 것은 삶의 연속성이다. 즉 삶이 한 번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삶을 통해 지속적인 진화, 발달을 할 수 있다는 것. 또 이

와 연관된 연구들로, 수많은 임상체험 연구들을 통해 본, 영적세계에 대한 방대한 증거들. 그 다음으로는 James Folwer의 '믿음의 단계'에 대한 연구이다. 사람이 믿는 신앙에도 발달 단계가 있다는 연구. 즉 우리의 인지, 정서, 행동 모든 면에 발달 단계가 있듯이, 종교적 신앙도 우리가 성숙함에 따라 단계단계 발전 내지 진화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자료들을 통합하는, 방대한 통합 이론을 제시하는 Ken Wilber의 세계관인데, 그 세계관에 의하면 우주는 빅뱅으로 우주 정신이 물질화된 이후로 (Involution), 우주정신을 향하여 계속 진화 발전하는 도상에 있다는 것 (Evolution). 특히 우리의 의식 수준도 더 깊은, 혹은 높은 것으로 진화 발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의식의 진보 진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남가주 동창회 온라인강연

김영주 동문 '반려동물' 주제

지난 10월 30일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민일기, 약대 69)에서는 온라인 강연을 개최하였다. Zoom을 통한 이 행사는 올 들어 여섯 번째 행사이다.



김영주수(의대 88, 웨스턴대학교 수의과대학 조교수-사진)동문이 "반려동물 사랑이야기 - 응급상황 대처요령"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영상을 통한 이 강연은 수의대 동문들과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동문들이 참석했다. 김 동문은 일반적으로 응급 동물병원의 경우 치료 비용이 더 나올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대기시간도 길어질 수 있으므로 위급하지 않거나 오랜 기간 두고 보고야 하는 만성 질병들은 일반 동물병원에 예약을 해서 치료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선 단독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 알래스칸 말라뮤트(Alaskan Malamute)나 저먼 셰퍼드(German Shepherd) 등 몸집이 큰 개들을 키우곤 한다. 이런 큰 개들엔 한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질병으로 고창증(Bloat) 있다. 갑자기 위가 꼬여서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 된다며 갑자기 배가 불러오거나, 속이 불편해 트림을 하려고 하면 지체없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배별 동문 모임으로 더 친밀하게”

‘샤로수’, ‘아크로폴리스’, ‘마로니에’ 등 세대초월 활발한 활동

지부소개 워싱턴 D.C.



회장 박상근

▲전체동문수/참여 동문수: 700명 내외/평균 200명 내외

▲참여동문 평균연령(학번): 학년 정보를 가지고 있는 700여 동문들의 평균 연령은 61세, 평균 학번은 78학번입니다.

▲젊은동문(50세 이하) 참여율: 700여 동문들 중 226분이 50세 이하 (89학번 이후)입니다.

▲젊은 동문들의 참여가 가장 활발한 지역 인듯 하다. 젊은층 유입을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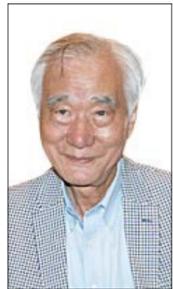
- 1.LinkedIn의 Sales Navigator라는 tool (유료)로 automatic search를 만들어, DC/MD/VA 지역에 사는 서울대 출신들을 자동적으로 scan하고, 새로운 동문이 들때 마다 Alert를 받아 직접 연락하여 동문 정보를 받습니다.
- 2.저희 지부에서 알고고자 하는 사항들은 monthly e-뉴스레터, 전체 동문메일, 단독방, 페이스북 그룹, evite등등 내용에 따라 적절한 형식을 통해 소통합니다.
- 3.서울대미주동창회 워싱턴D.C. 지부, Facebook 그룹을 만들어, 그 곳을 통해 뉴스레터, 행사 안내, 동문 사진 등등을 항상 공고하고 올립니다. 현재 저희 지부 소속이신 동문들께서 이 지역에 살고 계시는 다른 동문들에게 그룹에 들것을 권유하게 되다 보니 소셜 미디어를 자주 이용하는 젊은 동문들의 참여도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 4.MailChimp(현재는 무료 서비스를 이용중입니다)를 이용하여 동문 소통이 있을때 마다 가장 최근의 동문 명부정보로 받는 대상을 업데이트하여 이메일 정보를 가지고 있는 동문들께 전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5.행사 (골프대회, 소풍, 줌 해피 아워, 이사



중창동호회 모임

회, 총회, 연말행사, 설날행사 등등)는 항상 evite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여 소셜미디어에 익숙한 젊은 동문들의 행사 인지도/참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6.연령별로, 2000학번 이후의 동문들을 '샤로수' 1975학번에서 1999학번 (관악캠퍼스 시작 세대) 동문들을 '아크로폴리스' 1974년 이전 학년 동문들을 '마로니에'라고 하여 각 그룹의 단독방을 마련하였습니다. 동문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현재 아크로폴리스 단독방에는 80여명의 동문들이 활발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계시고, 샤로수 단독방도 그에 준하는 수의 동문들이 단독방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7.2020년부터는 zoom을 이용한 만남의 기회를 늘리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Happy Hour, 세미나 (코비드의 유래와 현재 주소, 향후 대비, 산수화 감상 등), 임원회의, 이사회 회의 등등을 줌으로 하고 있는데, 동문들의 참여수가 생각외로 높습니다. 8.젊은 학번 (eg, 2000학번 이후의 샤로수 동문들)의 동창회 행사 참여를 높이고자, 샤로수 그룹의 회비, 참가비를 낮추고 (학생의 경우는 아예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저희 지부의 이사진에는 다른 이사진들보다 조금 더 특혜를 주어 샤로수 동문 2인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9.회장과 두 분의 부회장이 모두 아크로폴리스 세대입니다. (75학번, 82학번, 82학번) 10.저희 지부 임원진에도 50세 이하의 임원



이영욱 (8대 미주동창회장)



오인환 (12대 미주동창회장)

들이 다수 참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총무, 부총무, 회계, eNewsletter 편집장이 50세 이하이고, 다른 직책의 임원들도 50대 초반입니다. 특히 신경을 써서 부총무와 회계는 샤로수 동아리 모임에서 택하였습니다. 11.행사를 할 경우, 젊은 세대 동문들에게 더욱 다가갈만한 주제, 상품, 게임 등등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반영합니다. 12.동아리 그룹인 마로니에, 샤로수와 아크로폴리스 사이의 연결고리를 더욱 두텁하게 하고자 소그룹/동아리 홍보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eg, 하이킹, 골프, 중창동호회, 번개미팅, etc)

13.동문들 사이에서 조금 거추장스럽게 여겨질 수 있는 형식적 호칭을 지양하는데 노력합니다. 특히 여성동문들 사이에는 xxx 선배님, xxx 박사님 등등의 호칭 대신 xxx언니로 소통할 것을 서로서로 권고합니다. 남성들 사이에서는 임원단에 대한 직함 호칭을 빼놓고는 주로 선배나 동문이라는 호칭으로 통일합니다. 14.매달 발행하는 e뉴스레터에는 거의 항상 샤로수 동문들 중 한사람을 (혹은 부부일 경우, 부부들) highlight하고 그들에 대해 두 세페이지를 할애하여 소식을 씁니다. 15.감사하게도 저희 지부는 회비, 이사회비, 장학금을 아낌없이 내주시는 동문들의 비율이 꽤 높습니다. 또 현금이나 수표를 잘 사용하지 않는 젊은 세대 동문들을 위해 square, zelle, paypal을 적극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젊은 세대 동문들만의 행사를 지

원하는 것이나 전체 동문회 행사가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16.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지금까지 섬겨오셨던 회장/부회장들께서 한 세대에만 머물지 않는, 그래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Legacy가 이어지는 젊은 동창회라는 motto를 가지고 행사 및 소통의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이것을 항상 강조하여 오셨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50여분으로 이루어진 이사진은 49학번부터 08학번까지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Covid-19로 인한 활동의 제약이 많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동문들간의 소통은 어떤식으로 진행 되었는지:

- 1.줌을 이용한 모임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매달 열리는 임원회의를 격달로는 줌을 이용해 해왔습니다.
- 2.올해에는 줌을 이용해 이사회, 학술/예술 세미나, 해피아워/게임 나이트 등의 행사를 치렀습니다.
- 3.동문들과의 소통은 위에 말씀 드린대로 소셜미디어 플랫폼 (페이스북 그룹, 카카오톡, 이바이트)등을 통하여 더욱 빠르고 생동감 있게 전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4.소그룹으로 대면 모임이 가능한 경우, 코비드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필수 사항 (모일 수 있는 최대 인원, 갖춰야 하는 물건 등등)을 공고하고 이행합니다. (eg, Potomac Eagle Train 소풍, 골프 대회, 중창 동호회 모임, 하이킹 모임 등등)



▲설날모임



▲등산모임

/ 동문 시 /

고마운 마리아



서윤석(의대 62)

진료실 책장 위에 놓인 소녀의 머리를 본다
 멕시코 산골에 살던 마리아 곤잘레스를 본다
 그녀의 보드랍던 고운 얼굴을 만지면
 열두개의 신경줄이 나오고 붉은 동맥이 박동하던
 푸른 정맥이 달리던 구멍을 본다

검정 볼펜으로 측두에 선을 그으면
 골절을 수궁하던 배심원의 눈빛도 보이고
 환자의 고통도 보인다
 의학을 배우는 자나 의문이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같이 마리아를 본다

우리 그녀를 볼 때면
 맑은 시냇물 흐르는 소리 들리고
 오색 찬란한 무지개가 뜬다
 맛있는 음식도 먹는다
 손을 움직이며 생각하는 호모 사피엔스
 글을 쓰고 남을 가르치고 창조도 하는
 하하 웃음도 짓는 우리의 머리를 본다

마리아를 볼 때면

독한 포르마린 냄새가 눈물을 흘리게 한다
 연구실의 카테이바가 누워 있다.
 피부가 해부되어 장색 근육이, 하얀 신경줄이 노출되던
 시신을 본다
 뼈가 툭에 잘리고 장기가 드러난 영혼들의 시신을 본다

열여섯살 처녀 마리아
 너는 늘 어린 나이에 책장 위에서 조용히 살다가
 우리가 부르면 선뜻 내려와
 모두에게 등불이 된다

고마운 마리아
 너는 이 땅 위에서 천년을 산다

/ 동문 시 /

“Hello보시게, ... 한때인거”

‘한때 / 우연 / 인연’



이홍빈(의대 57)

꽃을 보면
 암만 한 땀니다
 무릇 운도 한땀니다

인연 보면
 그때로 하모
 사뭇 한 땀니다

우연도
 행여 인연으로
 내 크낙한 운입니다

세월 따라
 때 마다
 사뭇 꽃이 한 때

우연 마다
 운 따라
 인연처럼 귀합니다

세월 타구
 (철 따라) 어땀뚝
 꽃 피듯 한 땀니다

귀한 인연들
 (때 따라) 꽃말 하며
 크나 큰 운으로 한 땀니다 .



‘모천회귀하는 연어를 사냥하려는 곰 <사진=김 경>

/ 자연과 삶 /

땅의 소리



김 경(간호 69)

그 해 윈체스터의 여름은 유난히 뜨거웠다. 너무 뜨거워 꽃도 살지 못하고 모기도 견디지 못했다. 토끼들과 다람쥐도 어디론가 가 버렸다. 에어컨의 바람을 건디는 것도 힘들어 도망가고 싶었다. 몇 년 전에 단체여행에서 잠시 맛보았던 알래스카가 내 눈앞에서 어른거렸다. 차에 캠핑 장비를 싣고 북쪽을 향했다. 캐나다를 넘어 안내소에 가서 지도를 얻고 안내소 직원에게 알래스카 하이웨이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한참을 달려 마을과 사람이 안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는 조금씩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가도 가도 인가는 없고 내 앞으로 빨려 들어오는 길과 산과 호수만 보였다.

집을 출발한 지 엿새 되던 날 키트왕가(Kitwanga)라는 작은 마을을 지나며 구멍가게 같은 주유소를 보았다. 다음 주유소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 주유소를 만날 때마다 차에 기름을 꼭 채우라는 안내소 직원의 말이 생각났다. 기름을 채우고 나와 가던 방향으로 다시 달렸다. 표시판도 인가도 없는 길을 달리다 어느 순간 프린스 루퍼트(Prince Rupert) 가는 길이라는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다. 낯선 이름이다. 휴대전화도 GPS도 안 되는 곳을 지도 한 장 들여다보며 가야 하기에 내가 지나가야 할 마을 이름들을 외우고 있었는데 그 이름은 생소했다. 마을이던 건판이건 무언가 다시 나올 때까지 달렸다. 여기서 길 안내판이 50마일을 달려도 안 보일 때가 있다. 분명 알래스카로 가는 길이 아니었다. 어디선가 지나쳤나 보다. 차를 돌렸다.

다시 돌아가 조심스레 찾아보니 주유소 간판 바로 뒤에 37번 길 표시가 있었다. 내 눈에 당장 필요한 주유소 간판만 보였던 거다.

길은 고요했다. 알래스카가 가까워질수록 사람의 흔적은 점점 더 줄어들었다. 아름답고 넓은 땅이나 겨울이 길어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대 자연만이 그 땅을 지키고 있다. 자동차의 시동만 끄면 완벽한 정적이 나를 감쌌다. 길가에서 열매를 따 먹고 있는 곰을 만났다. 긴 겨울잠을 자야 하는 곰들은 짧은 여름 동안 아주 많이 먹어 두어야 한다. 차에서 내려 가까이 갔지만 낯선 침입자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먹는 일에 열중했다. 들소 떼를 만났다. 수컷들은 암컷을 차지하려는 것인지 제 가족을 보호하려는 것인지 머리를 부딪치며 싸우고 있었다. 두 마리의 거대한 들소가 머리를 부딪치는 소리는 조용한 들판에서 천둥소리만큼 크게 울렸다. 태어난 곳을 향해 수백 마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거슬러 오르던 연어들의 몸부림은 눈물겨웠다. 어디론가 나들이 가는 무스가죽도 만났다

넓은 벌판에는 유채꽃이 골도 없이 피어있었다. 가까이 가면 비릿한 냄새가 났다. 꽃이 지고 거기서 열매가 익으면 유채꽃은 사람들에게 향긋한 캐놀라 기름을 내어 줄 것이다. 얼음이 녹은 호숫가에서도 꽃들이 피어났다. 드넓은 연못을 가득 채운 노란 연꽃들, 눈 녹은 물을 먹고 피어난 보라색 층층이뿔채꽃(Lupine)은 알오마한 산 하나를 가득 뒤

었다. 파란 하늘과 눈에 덮인 산봉우리 그리고 산자락을 가득 덮은 야생화는 사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작품이 아니었다. 몰매화, 투구꽃 (Monks Hood) 같은 작은 꽃들은 겸손하게 몸을 낮추고 땅에 주저앉아 그 모습은 보여주었다. 언 땅을 뚫고 나와 피어난 꽃들은 내가 전에 본 어느 꽃들보다 깨끗하고 색이 선명했다.

앵커리지에서 호머로 가는 길옆에 캠핑장이 하나 있다. 거기서는 육지 사이로 들어온 좁고 긴 바다 쿡 인렛 건너로 만년설에 덮인 레이크 클라크 국립공원이 보인다. 12 불 내고 하룻밤을 지내기가 황송할 만큼 웅장한 경관이다. 장작을 사다 불을 피우고 손에 잡힐 듯 가까운데 갈 수 없는 레이크 클라크 국립공원을 바라보며 마음을 달랬다. 이른 아침 호숫가에 쪼그리고 앉아 호숫물로 세수하고 산책로에서 만난 하얀 야생당근꽃(Queen Anne's Lace)은 수놓은 여왕의 옷 자락처럼 곱았다. 폭포 물로 밥해 먹고 밤새 폭포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도 잘 잤다. 캘리포니아의 열기를 피해 와서 거대한 알래스카의 품에 마음껏 안겨 보낸 시간은 지금 생각하면 꿈같다. 그곳에는 웅장하면서 섬세하고 화려하면서 깨끗한 대자연이 있었다.

나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준 알래스카가 속도로 앓고 있다는 것을 데날리 국립공원의 안내소에서 보여준 영상으로 알게 되었다. 지난 20년간 알래스카의 평균 온도가 4도 올라가며 순록이 좋아하던 키

작은 나무가 있던 자리에 말코손바닥사슴(Moose)이 좋아하는 키 큰 전나무로 채워지며 생태계에도 변화가 왔다. 빙하는 점점 사라지고 영구히 얼어 있을 것 같은 땅이 녹아 지반이 흔들린다고 한다. 북극의 얼음이 녹아 흰곰들이 먹이를 찾아다니지 못해 생존이 위태롭다고 했다. 과학자들은 머지않아 빙하가 다 없어 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몇 년 전에 찍은 사진과 지금의 사진을 비교해 보면 이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다.

가장 빠른 속도로 빙하가 줄어들고 있다는 액티 글레이시어(Exit Glacier)로 갔다. 산 위에 조금 남아있는 오래된 빙하는 더 이상 녹아내리고 싶지 않은 듯 산꼭대기를 부둥켜 안고 버틴다. 빙하 아래로 가까이 걸어가서 들여다보니 빙하와 땅 사이가 텅 비어있었다. 더위지는 땅의 온도를 견디지 못하고 녹아내리는 물은 땅의 눈물처럼 느껴졌다.

캘리포니아의 기록적인 더위를 피해 간 알래스카도 더위를 먹어 앓고 있었다. 힘도 없고 대책도 모르는 나에게 알래스카가 말하는 것 같다.

“땅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봐”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땅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안타깝다. 집으로 돌아오는 긴 시간 동안 땅의 울음 섞인 소리가 귓가에 들려 오는듯했다

팬데믹 중에 ‘사상 첫 온-오프라인 평의원회의’ 개최 간절함으로 이뤄낸 도전과 성취의 한해

2020회고 좌담회

타임지에서 공개한 12월 신간 표지가 화제다. 타임지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2020이라는 숫자에 붉은색으로 X 표시가 되어있는 표지를 공개했다. 아래엔 “역대 최악의 해”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타임지가 커버에 붉은색 X 표시를 사용한 것은 역대 다섯 번째라고 한다. 1945년 아돌프 히틀러의 죽음을 기념한 것이 시작이었다. 이후 이라크 전쟁이 발발한 2003년과 이라크 알카에다 지도자가 사망한 2006년 그리고 지난 2011년 빈 라덴의 사망 소식에 붉은색 X표시로 표지를 장식했다.

올 한해 Covid-19가 전세계인에게 끼친 영향력은 이라크전쟁이나 빈라덴의 사망소식 보다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컸을 것이다. 정부의 Stay Home 명령으로 학교와 비즈니스가 문을 닫았으며 만나지 않는 것이 예의가 되었고, 거리를 두는 것이 미덕이 되었다.

이렇듯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일상을 지나며 우리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힘든 일상속에서도 소소한 행복을 찾기도 했다. 가족과의 시간이 늘어나며 느낀 즐거움, 함께하지 못한 이웃에 대한 그리움, 당연한 듯 여겼던 일상에 대한 고마움으로 바뀐 시간들이었다. 분명 몸은 멀어졌지만 마음만은 어느때보다 가까웠던 시간이었다.

2020년을 돌아보며 타임지 표지처럼 ‘사라져버린것 같은 한해’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분명 일상을 대하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많은 변화를 일으킬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한해였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미주동창회보 편집부도 Covid-19로 인한 소통과 만남의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사상 첫 온-오프라인 평의원회의 성공개회 등으로 그 어떤 해보다 특별했던 2020년을 돌아보려한다.

<편집자 주>

▲한해를 보낸 간단한 소회를 전한다면.

<문현호 총무국장>

힘든 와중에 모든것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8월에 평의원회의도 성공적으로 끝나서 좋았다. Covid-19로 인해 제약도 있었지만 새로운 방법도 찾게되고 시도 될수 있어서 의미있었다.그 변화의 시점에 미주동창



(오른쪽부터) 이희만 편집고문, 신승남 회장, 최형무 고문, 연영재 사무총장, 문현호 국장, 정주명 간사, 박정원 편집장, 이지희 간사

회가 있어서 다행이었다. 회장님과 사모님께서 생업을 포기(?)하시고 풀타임으로 전념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한다. 나는 하는게 없었지만 와서 손가락만 얹은 기분이다.

<최형무 법률고문>

세월이 가며 인생을 생각하게 된다. 올해는 특히 코비 19의 팬데믹 전염병으로 미국에서 어느 나라보다 많은 피해자를 내고 경제적으로도 모두들 어려운 시기였다. 이제 제가 해야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란다. 생각해 주고 돌보아 주신 동문들에 감사드리고, 자랑스런 모교를 졸업할 수 있게 하시어 감사드립니다.

<유시영 홍보국장>

2020은 역사에 전례가 없었던 불행한 한해였다. 우리의 정상(norm)이 도전을 받고 성의 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더 많은 성찰과 미래의 새 세상을 그려보는 긴 꿈속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연영재 사무총장>

무사히 아무탈 없이 한해가 지난 것에 감사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서울대 출신들이 개인주의로 인해 단결되지 못하는 점이 큰 아쉬움이 있다. 응집력이 없이 모래알 같은 단결력이 아쉽다.

<이희만 고문>

올해는 Covid-19로 인해 동창회의 활동에 제약이 생길수 밖에 없었다. 대신 적극적인 온라인과 이메일 활동으로 뉴욕만 1600명이 넘는 회원수를 확보할 수 있었고 회보 발행부수 또한 크게 늘었다. 이렇게 할수 있음에 감사하고 열정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한다.

<신승남 회장>

동창회장을 하며 나 또한 많은 것을 배운다. 서울대 미주동창회장이라는 자리는 한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자리이다. 그것이 주는 무게는 엄청나다. 2년의 임기가 지난후 후회하지 말아야겠다는 각오로 하루를 연다. 배설한 칼럼니스트의 글에 “본인이 희망하는 상상과 현실과의 사이에는 커다란 Gap이 있다. 그 공간을 뛰어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간절함’”이라고 한다. 지난 평의원회의 또한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무에 대한 회장으로서의 ‘간절함’이 있었다. 그러므로 그 행사를 무사히 마칠수 있었다. “하루를 영원처럼 살라”고 한다. 그러한 마음으로 1년반의 시간을 보냈다. 나 또한 시간이 지나며 성숙해진 계기가 된 것 같다.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다.

<이지희 간사>

미주 동창회 간사로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임원으로서 일하는 것이 처음이라, 이런 단계를 운영하기까지 이렇게나 많은 일이 필요한 줄은 전혀 몰랐다. 매달 동창회보의 기사 하나가 나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그 외에도 동창회 운영을 위해 회장님과 사모님께서 신경써셔야 할 일들이 정말 많았는데, 모교사랑과 열정없이는 절대할수 없는 일이란 생각이 들었다.

▲올 한해 가장 보람있었던 일은?

<문현호 국장>

평의원회의가 가장 보람있었다. 현장과 줌과 유튜브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한번도 해보지 못한 것을 성공적으로 마친것에 대해 보람을 느낀다. 경험해보지 못한 큰 행사를 치뤘던 기분이다.

<정주명 간사>

평의원회의가 이번 회기의 미주동창회가 남달라고 기억될 확실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아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해냈고 이번 계기로 동창회의 흐름에 많은 변화가 생겼것 같다. 평의원회의 개최에 대한 여러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치뤄냄으로 인해 11월에 있었던 각 지부 동창회장 Zoom 모임도 잘 치를수 있었던 것 같다. 비대면 모임이 일상으로 되는 과정에 큰 역할을 한 것 같다.

<박정원 편집장>

예상치 못했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편집을 맡는 한 사람으로서 회보를 제작하는데 발생할 문제에 대해 많은 우려와 고민이 있었다. 하지만 걱정과 달리 오히려 더 많은 동

문들께서 글을 보내주셨고, 심지어 글이 넘쳐 다음호로 넘겨야되는 경우가 생길 정도로 동문들의 참여가 늘었다. 또 가장 상황이 좋지 않았던 3-4월에는 신문 딜리버리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마감 시간을 앞당기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 정부의 ‘Stay Home’명령으로 집에만 머물러야했던 시기에 동문들께 작은 기쁨이 된 것 같아 보람을 느꼈다.

<이희만 고문>

올 한해 부족한 만남으로 인해 내치가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온-오프라인 평의원회의 성공개회를 통해 하와이 등 먼 지역 동창회들과의 만남은 더욱 활발했던 것 같다. 내년 브레인지네트워크 성공개회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연영재 사무총장>

가장 보람된 일은 당연히 평의원회의다.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남자선배님들의 경우 현장 참여를 원하는 분이 많았지만 아내 되는 분들이 많이 만류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상황속에서도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의 노력으로 잘 치뤘음에 보람을 느낀다. 특히 모두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무사히 대회를 마친것이 감사함을 느낀다.

<유시영 홍보국장>

편집위원들은 열정을 잃지 않고 항상 꾸준함을 유지하고 있음에 감사했다. 모임을 갖지 못했을 지라도 격려와 소통으로 한 해를 마무리 하려한다.

<최형무 법률고문>

그저 가족들의 사랑, 모국과 모교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교회, 동문회를 지켜 주신데 감사한 마음이다.

<이지희 간사>

미주 동창회 동문 주소록 업데이트하는 일이 가장 보람있었던것 같다. 그동안 동창회보를 받지못하신 많은 분들이 동창회보를 받으셔서 앞으로 미주 동창회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

▲ 6개월 밖에 남지 않았지만 어떤 방향으로 동창회가 운영되었으면 하는지 ..

<연영재 사무총장>

2년 임기는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신회장님 내외분이 그토록 열심히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다. 2년으로는 많은 것을 이뤄내기가 힘들다. 현실적으로 2년+2년으로 개정이 필요할 것 같다. 또한 동창회의 굵직한 일(300만불 모금 캠페인 등)을 선정해서 유급사무총장을 기용, 지속성 있게 발전을 이뤄낼수 있으면 한다. 동창회를 주도하는 연령대로 낮추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한 웹사이트를 획기적으로 기획해야할 것이다. 신문은 분명 많이 좋아진 것이 눈으로 보인다. 웹사이트 또한 프로를 영입해 큰 발전을 이루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면서 젊은층의 영입을 이끌수 있을 것이다. 내년 E에서 평의원회의가 있을 예정이다. 코로나도 잠잠해 질것이고 지난해 경험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좀더 잘 해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희만 고문>

2년이라는 시간이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분명 짧은 시간이다. 회장님의 일을 돕다보니 드는 생각이 Part time으로 일하는 젊은 회장을 추천할만 하지만 Full time Job을 가진 분들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잘해

보려고 하면 해야 할 일이 많다. 2년이라는 시간은 서울대동창회장의 명예로운 직책을 미 전역에 끌고루 돌아가게 하기위해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오늘날은 날은 더 많은 임원들이 모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러지 못한 이유는 보스톤 같은 학자들이 많은 곳은 시간적 여유가 많아 자주 모임을 갖지만 뉴욕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분들이 많아 그렇지 못하다. 앞으로 뉴욕지역의 발전을 위해 과제를 남긴 것 같다. 어떤 분들은 신문을 내는 대신 이메일을 보내던지 웹사이트에만 올리면 어떻겠냐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동창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신문을 직접보고 그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봉투에 후원금을 담아 보내주는 것이 주 수입원이 되고있고 신문이 계속되는 이유다. 젊은 동문들의 영입도 중요하지만 동창회 운영을 위해서는 애교심을 갖고 후원을 꾸준히 하는 시니어그룹의 지원이 중요하다.

<신승남 회장>

웹사이트 운영에 1년에 1만달러가 들어간 다. 당장 운영 재정에 대한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미루게 되었다. 현재 후원비 봉투 프린트 제작에만 1,400달러가 든다. 20명의 후원비가 들어와야지 커비가 되는 비용이

다. 하지만 요즘은 후원봉투가 우리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런 딜레마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입장이다. 특히 Covid-19로 인해 광고 수주가 1/3이 줄어든 상황이다. 운영자로서 현실과 이상사이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 동문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이 절실한 요즈음이다.

<박정원 편집장>

거의 모든 시간을 동창회 운영을 위해 헌신하는 회장님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때마다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성공적으로 동창회를 이끌어온 임원분들을 보며 지금까지 해온대로만 한다면 성공적으로 이번 회기를 마칠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회보 또한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동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신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문현호 총무국장>

동창회의 중심으로 하는 역할로서는 지금이 최선인것 같다. 연방정부(?)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신문 또한 많이 발전한 만큼 이대로 끝까지 집중해 나가면 될 것 같다.

젊은층 이슈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관심은 3가지이다. 1.Carrer Development 2.신분문제

3. 결혼이다. 그분들은 자리를 잡기위해 디딤돌이 필요하다. 동창회에서 도움을 준다면 바로 뛰어들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그럴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아무리 좋은 정보가 있더라도 이 3가지를 제외하면 참여하기가 힘들수 밖에 없다. 이러한 Needs를 고려해 동창회에서 할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유시영 홍보국장>

어려운 시기지만 꾸준히 할 일을 잘 챙겨 나가심을 옆에서 보며 남은 기간도 하던 대로 잘 해 나가리라 믿는다. 몇 안되는 임원이지만 시간에 여유를 가지고 순항하고 있어 좋다. 바라는는 여러 분과를 확장해 더 많은 참여를 촉진하고 그 사업을 계승함으로 다음 회계연도에도 연속성을 시도하면 미주 동창회의 안정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최형무 법률고문>

신회장의 리더십아래 임원들이 단결하고 힘을 잘 합쳐 어려운 시기를 잘 겪어냈다. 잔여 임기동안 좋은 기초를 잘 유지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동문들의 사정이 파악되면 격려하고 응원하고, 사회와 모교에 많이 기여한 동문들은 계속 빛이 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 전문인 칼럼 /

현대인의 적, 공포장애



정유석 (의대 58)

‘천로역정’(Pilgrim’s Progress 일명 ‘순례자 여행기’)의 저자 존 번연 목사의 자서전적 소설인 ‘죄인들 두목에게 내리신 은혜’(Grace abound to the chief of sinners)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적혀 있다.

“나는 어려서 교회의 종을 치고 놀면서 큰 즐거움을 느끼곤 했다. 그런데 조금 자라면서 내 양심에 가책 같은 것이 생겨났다. 장난으로 종을 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경건치 못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서서히 자리 잡았다. 그래서 결국은 종을 치고 싶은 생각을 포기하게 됐다. 그 후에는 종탑에 가서 그냥 종을 쳐다보기만 했다. 그러나 종을 치고 싶은 유혹은 내 마음에서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 얼마 후에는 종을 쳐다보기만 하는 것 자체도 경건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종탑에는 계속갔다. 하루는 종을 울려다보다 말고 훑시 이것이 내 머리 위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갑자기 생겼다. 그래서 종탑에 갈 때마다 큰 대들보 밑에 숨었다. 이제는 종이 떨어져도 대들보가 있니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데 또 다른 생각이 내 머릿속에 문

득 떠올랐다. 만일 누가 종을 치는 도중이 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종은 벽에 맞고는 튀어서 내 머리에 떨어질 것이니 대들보에 숨어보았자 나는 죽을 것이다. 그 후 나는 종탑 문 앞에만 서고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제는 안전하겠지, 그래서 한동안 종탑 문턱에 서서 종이 울리는 것만을 쳐다보았다.

얼마 지나자 또 다른 생각이 엄습했다. 만일 종탑 자체가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종탑 문턱에 서 있을 때마다 이런 두려운 생각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결국 나는 문턱에머져 설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종탑에 갈 일이 있으면 종탑이 내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린다는 두려움 때문에 곧바로 거기서 도망쳐야 했다.”

이 기록을 보면 번연 목사는 어린 시절 심한 ‘공포장애’(Phobic Disorder)에 시달린 것 같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기우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 근처에 유명한 일리(Ely) 성당이 있었는데 이것이 14세기 초에 저절로 허물어진 적이 있었다. 그 후 3세기 이상 이와

비슷한 사건은 전국을 통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종탑이 무너질 가능성이 극히 희박했다. 그는 종탑이란 밀폐된 공간을 두려워하고 있었으므로 그의 증상은 ‘밀폐공포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라틴어로 Clastrum 은 밀폐된 공간을 의미하고 phobia는 공포란 뜻임으로 밀폐공포증은 학술어로는 Claustrophobia라고 부른다. 조금 전문적인 소견이지만 그가 종탑에서 무너진다는 것이 기우임을 잘 알고 있었면서도 그곳으로부터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그의 공포증에는 강박적인 요소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공포란 ‘강렬하고 비합리적이며 지속적인 두려움’을 의미한다. 불안(Anxiety)과 공포(Phobia)를 흔히 같은 현상으로 보기 쉬우나 정확히 말하자면 불안은 대상이 없거나 막연한 것 어느 것에 대해 느끼는 불편한 감정인데 비해 공포는 항상 그 대상이 있다.

공포장애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우선 특수 공포(Specific Phobia, 일명 단순 공포증, Simple Phobia)인데 이것은 어

떤 동물이나 자연재해 같은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나 밀폐 같은 일정한 상황에 처했을 때 발생하는 공포로 대인 관계에는 별로 상관이 없다. 둘째로 사회공포(Social Phobia)란 것으로 남들 앞에 자신을 노출시킬 때 비웃음을 사거나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을 병적으로 무서워하는 질병이다. 그러니까 이 공포는 인간이 사회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끔 음악 연주나 연극에서 연기자들이 보이는 무대공포증도 사회공포증의 하나인 것이다. 셋째는 광장공포증(Agoraphobia)란 병이다. 이 상태에서 환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에 가면 불안해지고 심한 공황(Panic)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집 밖을 나다니지 못한다. 공포장애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그 빈도가 예상외로 높다. 현재 미국에서 전 인구의 5%-10%가 이 장애에 시달린다고 보고 있는데 어떤 통계에서는 25%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1/4까지 잡고 있다.

아마도 공포장애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신질환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된다.

“아메리칸 드림 성취, 커뮤니티 참여도 성공적인 삶”

철용 · 한용 형제 동문과 뉴욕동창회에 큰 힘 실어



/ 사람, 사람들 / **최수용 대표 (상대 56)**

최수용 동문은 무역으로 잔뼈가 굵은 그는 브로드웨이 한인상가의 주역들을 배후에서 자문했던 대부이다. 리버티은행 이사장과 스토니브룩대 한국학과 설립위원 및 후원회장, 스토니브룩대 총장 자문위원 역임 등 커뮤니티 참여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한국정부가 대미 수출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던 60년대 말, 새프 가방 하나 들고 뉴욕에 떨어졌던 30대 초반의 주재원이 있었다. 바로 최수용(78세)이다. 그간 힘들고 고된 여정 끝에 이곳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하고 훗날리는 백발의 모습으로 은퇴 길에 들어섰다. 한때 도미니카에 대형 봉제공장을 설립 운영하면서 80년대 초 적기에 부동산에 손을 댄 것이 주효하여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최수용 대표의 성공스토리를 들어본다. <편집자 주>

60년대 말 주재원... 샘플가방 하나 들고 뉴욕 도착
무역과 부동산 투자 등으로 ‘아메리칸 드림’ 성취
리버티은행 창립 당시 이사장직, 합병까지 큰 활약
스토니브룩대 한국학과 설립위원, 후원회장 역임

■동영상 제작, 웹사이트 운영은 물론, 컴퓨터 클래스까지 운영하신것으로 아는데...
파킨슨씨병 투병 전까지는 언제나 나의 하루는 이른 새벽시간 컴퓨터를 켜면서 시작되었다. 컴퓨터를 벗삼아 지내곤 했다. 꼼꼼히 배운 실력으로 동영상에 이용해 작품 하나 만들어 웹 사이트에 올리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사진을 직접 찍어 거기에 음악과 글씨도 넣고 손질을 해서 친구한테 보내준다면 크리스마스 때는 카드를 직접 만들기도 했다. 전에는 막연하거나 알파벳이 알던 지식을 컴퓨터를 통해 정확히 그리고 해박하게 알게되는 장점도 있어 좋았다.
뒤늦게 그걸 알아서 어디에 쓸 것인가 묻는 사람이 있었지만, 매주 그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잡아 1백 명은 되었다. 애호가 수준은 이미 넘어섰고 전문가 수준의 반 정도 실력을 갖췄다.
내가 무료로 가르치는 컴퓨터 클래스가 두 군데나 됐다. 내가 다니는 그레이트넥 성당 클래스는 주일 오전 미사가 끝나고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12시까지 2시간동안 열리는데 기초부터 시작한 강의는 4년 반 만에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다. 또 뉴욕지구 서울대 동창회 노장파들의 모임인 골든 클럽 클래스도 운영했다. 이 강의에는 20여명이 랩탑을 들고 시간이 끝나도 가지 않고 좀 더 배우려고 복직했다. 나의 사색적인 성격에 딱 어울리는 노년의 봉사였다. 지금은 파킨슨병 때문에 그만두고 이후 처음부터 함께 가르치던 후배 양인희씨가 말하

서 열심히 잘 이끌어갔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격언이 있다시피 나이드는 동문들도 살아 움직이는 인터넷 세계에 들어와 활발하고 보람 있는 자신의 세계를 발견하시길 바란다.
■주재원으로 도미후 비즈니스로 성공하게 된 계기는?
1960년 서울 상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수출입 회사의 실무중견 직원을 거쳐 69년 주재원으로 뉴욕에 상륙했을 때, 미국에 수출된 각 사의 한국 수출품에 문제가 많이 생겼다. 초기에 있었던 부조리이지만 악덕 수입업자들이 신용장에 함정을 만들어 놓고 상품이 도착할 때 클레임을 걸어 대금 지불을 거절하거나 단가를 깎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경험을 통해 그런 케이스의 해결 방법을 터득한 그는 문제의 상품들을 지혜롭게 처리해 수출회사도 구하고 자칫 되돌아갈 뻔한 상품도 현지에서 적절한 판매처를 구해 주었다.
74년 뉴욕에서 클레임에 걸린 S사의 인조가죽 가방을 김혁규·최희용에게 판매 의뢰한 것이 히트를 쳐, 브로드웨이 한인상가의 효시가 되었던 것은 유명한 사건이었다. 그때 얻은 별명이 ‘유타인 킬러’, ‘브로드웨이 대부’였다. 2년 후 독립하면서 ‘로드웨이 엔터프라이즈’를 설립했다. 1225 브로드웨이 빌딩에 사무실을 차리고 19년간 남녀 의류 수입 및 수출로 연간 거래액 9백만달 라는 당



아시아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쿠오모 뉴욕주지사과 함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함께. 본인(가운데), 동생 최한용(오른쪽)



서울대 동문인 두 동생과 함께. 최한용(맨오른쪽), 최철용(왼쪽)

몇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자, 빌딩을 매입한 친구와 동료들이 권리를 부탁했다.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합쳐 총 13개 건물과 세입자 120명 이상을 관리·운영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세월을 보냈다. 어쨌든 부동산은 노후를 보장하는 효자 상품임에 틀림없었다.

■리버티은행 창립에도 큰 역할을 하셨는데
1998년에는 뉴욕한인사회에서 임파이어, BNB에 뒤이어 세번째로 창립된 리버티은행의 이사장직을 맡게 되었다. 자본금 865만불, 주주 12명에 행장은 대학 동기인 우상영이 앉았다. 개점 2년만인 2000년에 플러스 지점이 설립되고 자산이 7,200만 달러로 예상보다 50% 초과 달성되는 발전을 이룬 가운데 8년 만에, LA에서 창설된 월셔은행과 합병하기에 이르렀다

■이외에도 다양한 정치·사회활동을 펼치셨다.
1983년부터 10년 가까이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 한국학과 설립위원과 후원회장으로 기부·모금 활동을 전개했다. 스토니브룩대 총장 자문위원으로도 있었다.
지역 정치에도 참여, 1989-94년까지 마리오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아시아 자문위원으로 유은희·홍성욱 등과 동참했다. 1997년 뉴욕지구 서울대 동창회장과 그레이트넥 한인 천주교회 신자 회장을 역임했다.

■3형제가 모두 서울대 동문으로 함께 뉴욕에 살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형제분들을 소개 해주신다면
우리 서울대 출신 동문 삼형제 중 내가 첫째이다. 첫째 동생 최철용(뉴욕지부 22대 회장 역임)은 농경제학과 57학번으로 한국에서 농협근무 1970년 미국이민, 현재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 둘째동생 최한용은 농경제학과 58학번으로 서울 신탁은행 국제영업부 차장을 지냈으며 1978년 미국 이민, 현재 CEO, Hansu Enterprises Inc.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모두 함께 미국으로 왔으며 지금까지도 차로 10분 거리에 거주하며 우애 좋게 지

내고 있다.

■간단한 가족 소개를 부탁한다
가족으로는 이화여대 가정학과 출신으로 부인(김상림)과 슬하에 2녀1남을 두었다. 변호사로 일하는 장녀(기원)와 스피치 테라피스트인 차녀(기인), 그리고 Willkie Farr-Gallagher 로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는 아들(리차드)이 있다.

약 력

- 현재 - CEO, Kione Enterprises Inc & Subong Inc.
- 1998 Liberty Bank 이사장
- 1989-94 쿠오모 주지사 아시아 자문위원
- 1996-97 서울대 뉴욕 총동창회장
- 1973-2006 CEO, Loadway Enterprises Inc.
- 1969-72 부산제복 주식회사 뉴욕 지점장
- 1965-69 서광산업 무역부장
- 1960-64 유한양행 근무
- 1969-71 NYU Business School (Stem)
- 1960 서울 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 졸업
- 1955 충주 고등학교 졸업

- 2017년부터 한미 장학재단을 통해 해마다 경영대학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 2003년 미주한인 인물 101인 선정 (미주한인 100년사 수록 명단)
- 2001년 서울대총동창회 공로상
- 2018년 서울대 총동창회 사회기여상



가족사진.



리버티 은행 창립당시(왼쪽에서 두번째)



시카고 동창회
회장 김윤하

2020년은 온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많이 움추러든 힘든 한해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한없는 도전으로 인하여 천연두가 이세상에서 사라진것 같이 지난 연말에 나온 코로나 백신 예방약으로 인하여 2021년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복되어 다시한번 인류의 큰 승리가 이루어지는 한해가 될것을 확신합니다. 미주 동창회와 각지부 동창회도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큰 기지개를 편 후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 내는 2021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신축년 새해에는 그동안 못만났던 동문들이 회포를 풀면서 더 높은곳을 향하여 매진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북가주 동창회
회장 임준원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힘든 2020년을 뒤로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미주동문들에게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북가주 총동창회는, 지난해에 팬데믹으로 인하여 매년 실시하던 행사를 취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뉴잉글랜드 동창회의 도움으로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북가주 동창회 웹 사이트 (snaanc.org) 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월초에는, 이사회를 줌(zoom)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모든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수 있는 북가주 동창회 여러분들의 노력과 성원으로, 새해에는 저희 동창회가 더 활기찬 동창회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힘찬 새해를 맞이하시고, 모든 미주 동창회 동문 가정에 행복 과 건강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남가주 동창회
회장 민일기

존경하는 서울대 미주동창회 동문여러분! 신축년 올해는 인내와 독심의 상징인 소의 해입니다. 올해에는 모두들 건강하시고 태내 화평과 하시는 사업들이 번창하시어 좋은 결실을 맺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전대미문의 Covid-19사태로 인하여 모두들 어려웠지만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여러가지 새로운 방법으로 소통하려 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서울대 미주 총동창회가 지난해에서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미주 각 지부 동창회의 구심점으로 또 본국의 총동창회와의 가교로서 새롭게 거듭나고 결실을 맺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뉴욕 동창회
회장 조상근

존경하는 서울대 뉴욕동문여러분, 2020년은 문자 그대로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COVID 19의 Vaccine Distribution이 시작되나 이전과 같은 Normal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건강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다름들이 하루속히 원만하게 해결되어 평화스런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동문님들의 가정에서도 힘든 일들을 많이 겪으셨으리라 생각되나 다가오는 새해에는 모든 일들이 뜻하시는 바대로 이루어져서 금년에 힘들었던 뉘까지 모두 회복되는 좋은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워싱턴 D.C. 동창회
회장 박상근

2020년은 저희 동문들을 포함해 모든분들에게 참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2021년은 신축년 소의 해입니다. 소라는 동물은 중후함과 열심히 일하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저희 미주지역 모든 동문들과 나아가 전 세계에 퍼져있는 저희 동문들이 각자가 처한 곳에서 소와같이 사회의 근간으로 열심히 일하며 동문간들의 우의가 깊어지는 한편 이웃을 섬기는 자랑스런 서울대인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필라델피아 동창회
회장 지윤민

겪어보지 못한 역병 Covid-19으로 모두가 답답하고 힘든 고난의 2020년을 보내고, 동문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에 희망과 기쁨의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에는 17개 각지부가 단단한 결속과 소속감을 증대함으로 미주총동창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더욱 발전하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각자의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과 확신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사:121:1-2)



조지아 동창회장
회장 이영진

다사다난 하였던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미주에 계신 동문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1년, 희망에 가득 찬 새해를 맞이하여 미주 동문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화목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의 어려움을 털어버리고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 사업들이 재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조지아 지부는 젊은(?) 80학번의 회장님이 새로 출발하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회장님을 중심으로 더 많은 동문들이 참여하고 교류하여 선후배 간의 정을 나누며 성장해 가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특별히 미주동창회가 변함없는 리더십으로 미주 동문들의 교류의 중심에 우뚝서는 한해가 될 것들을 기원합니다.



미네소타 동창회장
회장 차재호

모든 동문 분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 지시고, 또한 가족 모든 분들과 더욱 더 건강하신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빨리 COVID-19사태가 회복이 되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제약을 경험하고서야 그동안 우리가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마시면서 가까운 분들과 많은 일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는 것에, 얼마나 많은 고마움을 모르고 살았는지가 느껴졌습니다. 새해에는 더 많은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또 같이나눌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님들의 따뜻하고 든든한 조언과 후배님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반으로, 동문회가 더욱 발전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뉴잉글랜드 동창회
회장 김정선

2021년 1월 1일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미주 동문 여러분과 가족 유에 한없는 축복이 같이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겪어 왔던 코로나 팬데믹의 끝을 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많은 활동을 제약 받는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우리의 삶이 같이 돌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세계가 한 이웃이 되어 코로나 문제 해결을 해야 했고, 나의 가족, 친구, 동문들과의 만남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같이 만나 손도 한번 잡아 보고, 밀린 답소, 맛있는 음식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새해 가정마다 축복이 흘러 넘칠길 기도드립니다.



케네터킷 동창회
회장 유시영

민주주의의 발상지이며 오랫동안 지도자의 역할을 해온 미국에서 뜬금없이 민주주의가 도전을 받고 개인의 자유에 대해 부글부글하는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상황에 국민이 반으로 갈리고 모두 긴장해 있는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내년의 시작도 시골시골 할 것 같아 새해 인사도 보류하는게 안전하며 바이러스로 인해 침묵하고 있어 조심스러운 한 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자숙과 반성으로 내적인 단련을 하는 시간이되 더 나은 새해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각 개인의 염원을 굽히지 못하고 타협할 공간이 없는 긴장속에서 벗어나, 포용하고 받아드리는 감성과 이성이 모두 수그러지는 담담한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와이 동창회
회장 성낙길

동문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보통 때와는 다른 세상에서 산지 벌써 일 년이 다 돼 갑니다. 한번 시작한 코로나 팬데믹이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느껴보니 처음 예측한 것보다는 더욱 불편하고, 위험하고, 피곤하고, 어떨 때는 "대충할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치료제 개발이 눈앞에 있고 백신이 이제 막 나와서 접종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한 동안 많은 제약이 있는 가운데 생활해야 할 듯 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애써 좋은 점들을 찾으시고, 행복한 새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따뜻한 하와이에서.



알래스카 동창회
회장 윤재중

동문 여러분 가내 두루 안녕하십니까?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삼가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전대미문의 괴질 코로나19로 전인류가 공포속에서 희생되었고 아직도 진행중인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미주동창회를 굳건히 지키고 발전시킨 신용남 회장님을 비롯 임원 여러분들의 열사봉공하신 공덕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절하고도같은 저의 ALASKA 지회는 한인문화센터에서 차세대와 지역주민을 위한 우리전통문화 전반에 걸친 교육및 홍보사업에 적극 참여 우리의 존재감과 긍지를 갖고 미력이나마 정성을 다해 소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동문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안전을 빕니다.

동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울대 미주동창회 신용남 회장/임원 일동



워싱턴주 동창회장
회장 이명자

2020년은 위기의 한해였습니다. 한자로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이라고 해서 올 한해의 위기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위험으로 끝났지만 또 많은 사람에게는 기회를 준 한해라고 합니다. 위험하고 제한된 환경이라도 최선을 다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 동문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모두 건강하셔서 2021년 신축년에는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모두 반기가 만나 서로 축하하고 격려하며 새날을 꿈꾸길 바랍니다.



장원경 (미대 73)

/ 미술 이야기 /

작품 재료(물질)에 대한 소고(小考)

미술의 여러 장르 중 내가 작업하는 조각은 구체적인 재료를 가지고 도구와 그것을 다루는 기술(technics)을 사용하여 입체적인(3D) 형상을 만들어 공간에 전시하는 입체예술이다. 따라서 재료(물질)의 물성을 직접 만지고 접하는 작업과정으로 인해서 작가와 물질과의 관계가 타 장르에 비해 표피적이지 않고 상호간의 교감 수위가 깊어지는 것 같다. 특히 건물 앞이나 야외에 설치하는 대형 조형물 작업시에는 재료의 크기와 무게로 인해 거의 육탄적으로 함께 뒹굴며 접해야 하기에 체력소모도 많고 힘이 많이 든다. 그러나 반면에 '어려운 과정을 겪은 인간관계가 더 깊을 수 있듯'이 동일한 이치가 물질과의 관계에도 적용되는 내밀한 의미를 깨닫게 되어 그 관계가 더욱 각별하게 형성되는 것도 사실이다.

"아니 그거 정말 좋아서 하는 거예요?" 지난 한 작업과정 중 휴면지와 쇠가루, 땀으로 범벅된 모습을 보고 놀라(나를 잘 차려 입은 전시회에서 볼 수 있었던 평상시 모습과는 많이 다르리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다. 가끔은 "좋아 보인다!" "멋있다!"라고 말해 주기도 하지만 내 물골(?)이 정착 그래 보일리는 없고 아마도 젊지 않은 나이임에도 몰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에 대한 덕담일 것으로 안다.

돌이나 나무등의 덩어리를 깎아 형상을 만드는 조각과는 달리 금속조각 작업을 주로 하기에 왁스로 성형을 하여 주물작업을 하거나 금속판, 봉, 파이프등을 용접(welding), brazing, soldering 등의 접합기술로 이어 붙여서 성형하는 작업을 많이 한다. 그래서 작업과정의 대부분이 붙이고 또 붙이는 과정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갈고 닦고 채색하는 마감작업(finishing)의 단계는 예외 이겠지만 왁스로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 그것을 싸는 거푸집(mold)을 제작하여 왁스를 태워 없앤 빈 공간에 쇠물을 붓는 과정인 주물작업(casting)도 예외는 아니다.

왁스에 아교등을 섞어 점성을 높게 조절하여 원하는 형태와 크기로 이어 붙여 성형하는 과정이 그 재료의 부드러움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꽤 어려울 때가 많다. 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점성이 강한 sticky wax로 우선 붙여놓고 뜨거운 인두로 녹여가며 붙이는 과정은 대기의 온도에도 민감하여 더운 한 낮에는 점질이 떨어 지는 등 꽤 까다로운 작업이다. 더우기 4-5m 높이의 구조물에 삽입하는 1m이상 크기의 주물작업을 할 때는 여러 조각을 이어 붙인 왁스폼(wax form)을 들고 사닥다리로 올라가는 중간, 높이 위치한 삽입구에 맞춰 보기도 전에 이음새가 깨지곤 하여 동시에 주르륵 흐르는 눈물과 함께

수십, 수백번을 오르내려야 해서 몸무게가 몇 kg씩 쑥쑥 빠지곤 했다. 그러던 어느날 야외 조형물 제작시, 어느날과 같이 걸면의 텍스처를 살리려고 뒷면만을 뜨거운 인두로 지지고 식혀가며 힘들게 이어 붙이는 밤샘작업을 계속하다가 잠시 눈을 붙이고 돌아와 보니 열기설기 뿌려놓은 촛농과 함께 왁스폼의 이음새가 더할나위 없이 견고하게 엉겨 붙어 있지 않는가



Inherent Bronze casting, Brazed Copper Sheets, Patina

들끼리 정분이 난 것이다! 난 마치 커플관계를 성사시킨 중매쟁이라도 된 것 같이 기뻐했다. 물론 어떤 유기적인 법칙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 이었겠지만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인 듯 자기 몫을 감당해 주는 듯한 그와 같은 경험을 하다보면 왁스나 철판등이 한낱 무기물이라고 간과하게 되지 않고 애정을 가지고 접하게 된다.

또한 금속을 직접 붙이는 여러 기법 중 불이 고자 하는 두 금속면과 매개체인 용접봉을 모두 함께 녹여 붙이는 용접(Welding)에 비해 양쪽 금속을 녹이지 않고 그 사이로 모재보다 용점이 낮은 땀을 열을 가하여 흐르게 하여 붙이는 Brazing이나 Soldering 기법이 훨씬 까다로와 고도의 수련을 요하고 성공적인 결과물도 얻기 힘들다. 그리고 이 두 기법(Brazing, Soldering)으로 완성한 결과물인 가스다란 한 선으로 그어진 좋은 땀라인

을 얻으려면 몇가지 선결 조건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 조건들이 이상적인 인간관계, 특히 커플이나 부부관계의 선행조건들과 꽤 닮았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두 금속의 접합점이 청결해야 한다. -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있을 시에는 땀 라인에 까만 점인 pit으로 남는다.*땀 접합

을 얻으려면 몇가지 선결 조건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 조건들이 이상적인 인간관계, 특히 커플이나 부부관계의 선행조건들과 꽤 닮았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두 금속의 접합점이 청결해야 한다. -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있을 시에는 땀 라인에 까만 점인 pit으로 남는다.*땀 접합

을 얻으려면 몇가지 선결 조건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 조건들이 이상적인 인간관계, 특히 커플이나 부부관계의 선행조건들과 꽤 닮았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두 금속의 접합점이 청결해야 한다. -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있을 시에는 땀 라인에 까만 점인 pit으로 남는다.*땀 접합

을 얻으려면 몇가지 선결 조건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 조건들이 이상적인 인간관계, 특히 커플이나 부부관계의 선행조건들과 꽤 닮았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두 금속의 접합점이 청결해야 한다. -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있을 시에는 땀 라인에 까만 점인 pit으로 남는다.*땀 접합

을 얻으려면 몇가지 선결 조건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 조건들이 이상적인 인간관계, 특히 커플이나 부부관계의 선행조건들과 꽤 닮았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두 금속의 접합점이 청결해야 한다. -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있을 시에는 땀 라인에 까만 점인 pit으로 남는다.*땀 접합

을 얻으려면 몇가지 선결 조건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 조건들이 이상적인 인간관계, 특히 커플이나 부부관계의 선행조건들과 꽤 닮았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두 금속의 접합점이 청결해야 한다. -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있을 시에는 땀 라인에 까만 점인 pit으로 남는다.*땀 접합

을 얻으려면 몇가지 선결 조건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 조건들이 이상적인 인간관계, 특히 커플이나 부부관계의 선행조건들과 꽤 닮았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두 금속의 접합점이 청결해야 한다. -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있을 시에는 땀 라인에 까만 점인 pit으로 남는다.*땀 접합

유사한 것 같다

.위에 열거한 모든 준비과정을 완벽히 끝낸 후 아무도 없는 한밤중에 작업실 불을 다 끄고 토치의 불꽃을 부드럽게 하여(bush flames) 한치의 틈도 없이 접착면을 맞춰 붙여놓은 양쪽 금속부분이 서로 이탈하지 않게 조심스레 어루만지듯 서서히 가열하기 시작한다.

•결코 서두르지 않고 인내하며 양면을 같은 비중으로 동글게 동글게 불질(Torch work)을 하며 가열 면적을 넓혀 나간다

.땀 접착면 뿐만 아니라 양쪽 몸체 전체를 같은 온도로 가열해 줘야 땀이 녹아 흐른다. 그래서 brazing 기법이 땀부분만 가열해도 되는 용접(welding) 기법보다 고도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이유다

.끊임없는 불작업으로 드디어 별경게 달아오른 금속입체가 어둠속에서 신비한 자태로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몸체의 금속이 땀의 용점에 도달하기 직전 실수로 높은 토치 flame에 닿기라도 하면 액화상태로 녹아 내릴 수도 있었던 작가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달려드는 자태가 감동적 이기까지 하다.

•순간, 녹은 땀선의 두께만큼의 미세한 내려앉음이 감지 되자마자 한점의 열기도 더할 수 없다는 듯이 토치를 하늘로 치켜든다

•물아일체! 절정의 순간이다!

•혼자만의 시간으로 서서히 식어간, 이제는 한 몸이 된 조각물의 이음새(땀라인)는 줄질이나 사포질을 할 필요 없이 한줄의 미세한 선으로만 남아 양쪽을 이어주고 있을 뿐이다. 완벽한 한 몸체가 된 것이다! 그동안 다양한 경험을 겪은 결과 내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한가지 사실은 물질은 정확한 지식과 좋은 기술로 정성을 들이면 배반하지 않고 좋은 친구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술 그간 세상을 살아 가면서 예외 없이 접해야 했던 크고 작은 실망들, 완벽할 수만은 없는 인간관계, 진심을 바쳐 순수하게 지속되는 사랑도, 우정도, 그 어떤 대상도 찾기 힘든 세상사에 얼마나 많이 다쳐 왔던가? 그러기에 더욱 자신을 바쳐 큰 애정을 쏟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되고 더 나아가 아직은 궁정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신뢰관계를 맺고자 하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해주는 것 같다.

/ 미술작품 읽기 /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앤디 워홀의 '최후의 만찬' ②



김광현(미대57)

팝 아트(Pop Art)의 아이콘인 미국의 앤디 워홀(Andrew Warhol, 1928-1987)의 '최후의 만찬'과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의 작품제작 시기는 약 490년의 큰 시대적 차이를 갖는다. 1960-70년대, 워홀은 미국의 생산기술 및 사회 발전상과 여러사건들을 감지해 상업주의에 집중한 작품 제작을 했으니 이 시기에 중요한 사회적 사건과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1960년 본격적 대량생산화, 1965년 세계로 1억대 TV 보급, 1963년 케네디 대통령 암살, 1964년 미국의 베트남전 참여와 반대 시위, 1964년 마이클 잭슨의 활약, 1962년 마릴린 먼리의 사망, 1969년 루이 암스트롱의 탈 착륙 등 이러한 사회변화의 중심에 워홀의 감수성과 타고난 재능으로 미술작품 제작에 몰두했다.

반면, 르네상스가 특히 미술분야에 큰 영향을 주어 다빈치를 비롯한 작가들은 인본주의를 지향하고 사실성이나 심미성 표현을 중요시해 자신의 특출한 기법과 기교로 작품완성에 주력했으니 그림의 화법으로 1, 시초로 색채표현인 유화재료 사용 2, 평면상에 공간성의 원근법 표현 3, 빛의 방향성 조사 4, 삼차원적 피라미드 구도 등, 표현의 새로움을 적용하였다. 팝 아트 운동과 르네상스 시기에 회화 표현 목적이 전혀 다른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워홀은 회화기법이 나 보편적 모티프도 아니고 현실적 사회성과 생산주의를 선호해 대량복제의 판화인쇄법을 활용했고, 다빈치는 '그림이란 미적이고 실증적' 이어야 하는 실제성과 감동성을 바탕으로 한 유일한 창작주구에 노력했다고 하겠다.

팝 아트운동은 제2차 세계대전후 포스트 모더니즘(Post-modernism)이 문화, 예술의 기능주의와 권위 및 전통주의를 거부하면서 형성된 전위적 조형운동에서 기인된 영국에서 시작, 약 2년 후 미국의 대량생산 기업 구조에서 예술분야로 퍼져나가 '소비가 미덕'이란 유행어와 결부된 큰 바람을 일으켰으며 이 시기, 워홀은 작품 표현을 레디 메이드(Ready Made) 법을 구사해 왔다. 1949년, 현 카네기 메론 대학교(Carnegie Mellon University)를 졸업, 디자이너로 뉴욕 '그래머 잡지'(Glamour Magazine)사에 입사, 미국인에게 낯익은 '캠벨 숲의 캔, 32개한 화판 크기, 51cm x41cm)의 판화전시로 큰 화제를 낳았다.

그의 저서 '앤디 워홀의 철학'에서 '작품을 창작하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고 매출적인 사업이 최상의 예술이다'(making money is art and working art, and good business is the best art)고 했으며 대량복제의 실크스크린(Silkscreen)기법으로 다작(多作)을 하기 시작



▲앤디워홀의 '최후의 만찬'



▲'캠벨 숲 캔', (51cm x41cm)

▲'8명의 엘비스 프레슬리'

했다. 작품제작의 목표를 '물질성'에 두었고 미적인 보다는 비속성과 희락성이며 고전 작품의 재해석으로 르네상스시대의 명작들을 대량복제해 누구든 \$20-\$30불 정도의 저렴한 값으로 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유명인들을 등장시켜 자신도 그 반열에 오르듯 마릴린 먼로, 에리카베스 테일러, 그레이스 켈리, 베토벤, 마이클 잭슨, 모하메드 알리, 모택동 등이며, 20 세기 10인의 유명 유태인과 10인의 유명 운동선수들의 작품도 제작했고, '8명의 엘비스 프레슬리'의 편집작품은 2008년, 1억불에 팔리기도 했다. 인기상품으로 코카콜라, 햄버거, 중성세제, 진공 청소기 등을 표현했다. 그는 많은 화가들이 그림의 주제로 택하지 않는 재난, 총상, 재앙과 사망 등 말년으로 가면서 비참한 사건과, 사회적 화재를 이르킨 시사상의 소재도 과감히 표현했으니 '은색 자동차의 충돌 (112억원 상당), 지명 수배



▲앤디워홀

그는 회화, 디자인, 영화제작, 인쇄술, 사진술 등 각 분야의 달인으로 미술의 근간인 미학적 흐름을 흐리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받아왔다.(He blurred the line between fine art and mainstream aesthetic.) 워홀은 피부색이 변하는 백반증과 신경질 환인 무도병을 가졌으며 8세때는 몸이 안 좋아 수개월을 누워지냈고 14살에, 부친이 황달로 사망했을 때 장례식에 참석도 안했고 '스모키아'에서 이민은 아버지의 성, 'Warhola'를 미국식 'Warhol'로 바꾸고 동성애자의 급진적 여성주의자로 워홀 제작소 직원인 '솔라리스'(Valeri Solaris)가 쓴 총탄에 페, 간, 위, 목 등에 사망까지 갈 수 있는 총상을 입었으며 사망할때 까지 병원치료용 내의를 입고 지냈고 항상 은색 가발을 쓰고 다녔다. 그는 '거친 아이'(Turbulent Child)로 성장하면서 신체의 병약함, 명예와 물질의 부유함, 작품제작의 과잉적 욕망을 남기고 1987년, 59세에 담낭수술 사고로 사망해 고향의 비잔틴교의 묘지에 안장됐다.

그의 자한 세가지인, 1, 고향인 펜실바니아 피츠버그, 2, 신실한 비잔틴 가톨릭 교인, 3, 자신의 창의적 작품 등을 꼽았다. 그가 팝 아티스트가 된 동기는 미국의 기계문명과 사회적 풍토변화의 여러가지 이변시기에 태어나 서민층이 물질적 큰 기회를 갖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기계화한 작품제작, 판화기법의 최대한의 활용 가능성과 한편으로 전생애 동안 신체적 건강의 결함, 동성애자의 고민 및 1204년, 로마 가톨릭과 실제적 분열에 의한 십자군이 그의 종교인 비잔틴교 침략과 살상 등 피해의 트라우마도 작품제작 활동속에 흡인(吸引)되었으며 그의 말년을 구속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팝 아트운동이 유희성과 비이성적, 예술성이 희박한 대중문화로의 보편성이 넓게 형성되어 미술분야 및 타 예술분야에도 엄청난 변화의 파장을 이르킨 시대적 무브먼트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기홍(수이대 50)

<지난호에 이어서>

식당에서 저녁식사 값도 안되는 액수다. 지금 젊은이들에게는 상상도 하지 못할 값싼 월급이었다.

Ontario 수의가 대학 병리학 석사 학위는 사 진학 학점과 석사논문을 제출하여 받게 되어 있어 놀랐다. 나는 Wisconsin 수의과 대학에서 석·박사 과정 중 여러과목을 선택했다. 물리학, 통계학, 생화학 등 학점을 따는데 죽을 고생을 했다.

교수가 이런 기초과목 학점을 요구하는 이유는 전자현미경을 비롯하여 여러 시험기구를 사용함으로써 최소한 기계원리를 이해 하는데 필요하며 발암성 virus에 대한 면역 병리학을 연구하니 생화학 지식이 필요하고 시험결과를 분석하는데 통계학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후일에 독성병리학 전공 하는데 이런지식을 이용하여 큰 덕을 봤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전자 현미경이 없었다. 보통 병원에서 사용하는 현미경은 최고 천배 (1,000 X)까지 확대를 할 수 있고 세균을 관찰할 수 있지만 상세하게 세포의 내부구조나 바이러스를 볼 수가 없다. 미국에 큰 대학의 연구실에 한대 정도 이런 현미경이 설치되어 있었다. 극히 소수의 병리학 연구자들이 이런 현미경을 가지고 연구할 기회를 가졌다. 다행히 DuPont 회사 연구소에서 내가 이런 현미경을 사용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 많은 연구 논문을 발표할 수 있었다.

'AI시대 사라질 직업과 탄생할 직업'이란 제목으로된 보고서에 의하면 전세계에서 2020년 까지 일자리 710 만개가 사라질 것인 전망이다. 대신 200만개가 새로 생길 것으로 예상하며 손실 일자리는 510만개로 관측 되고있다. 직업 분야로 살펴보면 사무직 (476만개)이 전체의 67%를 차지하였다. 제조업 (161만개, 22.6%), 건설과 채광 분야(50만개, 7%) 그리고 이법률분야 (50만개, 15%)로 보고되어있다. 과학, Computer 공학, 수학 분야에는 남성이 다수 차지함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빠른 속도로 직업을 상실될 것이라고 예측 하고 있다.

반면 고용창출이 될 200만개의 일자리 분야는 (1) 경영, 재무 운영 분야 (49 만개, 25%), (2)관리 감독분야 (41.6 만개, 21%), (3)컴퓨터, 수학 분야 (41만개, 20%) 건축, 엔지니어 분야 (34만개, 17%), 그리고 (5) 교육관련 분야 (6.6 만개, 3.3%) 순이었다.

감소되는 일자리 수와 비교하면 증가 되 것으로 전망되는 일자리수는 터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일자리수는 대폭 감소 할것이라는 예측였다.

오늘날 우리생활에 침투하는 AI 로봇과 일자리 변화를 일으키는 AI 로봇은 (1)드론(Dron), 10년 전에 주로 군사무기로 사용하

였지만 점차 이 드론으로 인해 소멸될 수 있는 직업들은 배달원(택배, 음식, 우편), 경비원, 소방관, 건설 모니터요원 등 이 있다. (2) 무인자동차 로봇. 소멸되는 직업들은 운전사(택시, 리무진, 렌터카, 화물운송, 집배원 등) (3) 제조로봇. 소멸되는 직업들은 소매점원, 재고담당자, 계산원, 약사, 의사, 산림관리자 등). (4) 도우미 로봇. 소멸되는 직업들은 영양사, 요리사, 공장경비원, 편의점, 마트 점원, 동시통역사 등. (5) 의로로봇. 소멸되는 직업들은 외과의사, 신경정신과의사, 간호사, 재활전문가 등. (6) 농업분야에서 로봇의 활용으로 농약사용을 80%까지 감소시킬수 있고 장치 대부분의 농장이 자동화 될것으로 예측된다.

한국 TV에서 치매환자를 치료하는데 인기

“

대학 2학년 겨울 방학 때 Christmas card 와 대학을 졸업하면

결혼 할것이니 그 때 까지 기다려 달라는 편지를 전하려고 자주 학교 직원실에

갔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주지못했다. 그런데 다음해 그 여선생님은 내 후배와

결혼을 하였다. 나는 Christmas card 한장을 주지 못한 죄로 첫사랑인

그 여선생님과 연을 맺지 못한 슬픈 기억이 일생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

기능의 상실속도를 줄이기 위하여 인간로봇과 대화하는 것을 봤다. 환자과 로봇간에 대화하는데 로봇이 얼굴은 완고한 인형이며 아무런 감정의 표시가 없다. 반면에 치매 환자는 기쁨과 슬픔의 표시가 음성과 얼굴에 나타났다. 로봇과 환자간에 인간으로서 서로 교감이 되는 인정이 없다. 내가 인간로봇을 싫어하고 혐오감을 가지는 것은 인간으로서 서로 교감이 되는 감정을 느낄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집 식구들의 온갖 사랑을 받았던 강아지는 말을 못하지만 말을 하는 인간 로봇과 달리 사랑을 받는 이유를 말하고 싶다. 내가 "Timmy"라고 부르면 내 목소리의 accent 로 내 기분을 감별하는지 내가 기분이 좋아서 부르면 꼬리를 흔들면서 내안으로 달려 와서 jump를 하여 인사를 한다. 그런데 내 기분이 좋지 않을때 부르면 꼬리를 내리고 살금살금 다가서서 무표정으로 내 눈만 주시한다. 이 개는 말을 못 하지만 내 감정을 알고 자기 감정을 표시하니 서로가 감정이 교감을 할수 있으니 정을 서러 주고 받고 하니 사랑 할수가 있었다. 이 개는 고인이 된 처하고는 누그보다도 가까운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을 하였다. 집터가 약 2 arc 가 되어 처는 아름다운 화단을 꾸민다고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하루는 내

가 처에게 당신은 내 보다 개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고 하였더니 "당신은 내가 외출 하여 집에 왔을 때 인사가 없는데 개는 멍멍 하면서 꼬리를 흔들면서 jump하여 인사를 하니 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고 하였다. 그개는 13세 (천수)에 죽었는데 주기 3일전에 집에서 사라지고 시체를 나무가 우거진 집터 숲속에서 발견 하여 그곳에 묻었다. 그개가 죽은 후 부터 처는 개를 기르지 않았다. 이유는 또 다시 그런 쓰라린 이별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마지막 한장의 Christmas card가 전달이 안되어 비극을 빚어낸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6.25 사변은 내가 4월달에 서울대 수의과 대학에 입학하였을 때 일어났다. 9.28 서울이 해방이 되고 우리 집에서는 서울에 있는 하

이므로 서양 백인 여자 같은 인상을 주는 미인이었다. 나는 그 여선생님을 몇번 만나 본 후 결혼을 결심하였다. 대학 2학년 겨울 방학 때 Christmas card와 대학을 졸업하면 결혼 할것이니 그때 까지 기다려 달라는 편지를 전하려고 자주 학교 직원실에 갔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주지못했다. 그런데 다음해 그 여선생님은 내가 다니던 제주농업 고등학교 1년 후배 하고 결혼을 하였다. 시댁은 옷마을에 제일 크게 농사를 지어 농가로서 일등 부자집 었다. 나는 Christmas card 한장을 주지 못한 죄로 첫사랑인 그 여선생님과 결혼을 못한 슬픈 기억은 일생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내가 1994년에 DuPont회사를 은퇴한 후 1994년부터 2016년 까지 대전 유성에 있는 한국화학원 독성평가 연구소에 기술고문으로 있을때 매년 한번은 제주 고향에 갈 기회가 있었다. 우리 밀감 과수원이 그여선생님 시댁 근처에 있기 때문에 자주 과수원에 갔는데 하루는 먼 길가에 노동복 옷차림으로 있는 모습을 봤다. 시집 가기 전에는 손에 흙을 만져보지 못하고 자란나 부자집 규수였는데 초라한 노동복 옷차림한 모습을 보니 내 가슴이 아팠다. 만일에 그 여자가 나와 결혼 하였으면 농사꾼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불쌍하고 그 모습이 내 머릿속에 사라지지 않았다. 설상 가상으로 결혼한 남편이 젊은나이로 사망하여 홀로 산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도 상처하여 홀로 사는데 고생이 많아서 내가 그림던 그 여자하고 재혼을 하려고 고향에 가서 소식을 들어봤더니 젊어서 과부가 된 후 딸과 제주에서 장사를 하고 지내다가 치매에 걸려 결혼할 상대가 아니라고 들었다.

금년 봄에 뉴욕에서 건축가로 있다가 은퇴하여 우리교회에 다니는 교인과 이야기를 하던 중 대학 동창 중 제주도에서 건축가로 활약하는데 친하게 지낸다는 말을 하였다. 그 여선생님 일가가 광주에서 건축가로 활약 한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어서 혹시 그 일가 사람이 아닌가 하고 email 주소를 받고 연락을 하였더니 놀랍게도 그 여인의 작은 남동생이었다. 내가 그 남동생에게 누나는 어떻게 지내는가 안부를 물었더니 아주 오래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였다. 그 여자에게 전하지 못한 마지막 한장의 Christmas card가 원망스러웠다.

명필가인 그 여인 부친께서 내이름을 쓰고 주신 글이 몇개 우리집 거실에 걸려 있다. 한 한시를 쓴 글인데 내용은 "일찍히 고향을 떠나 머리가 백발이 되어 고향에 돌아왔더니 어린 소년이 미소를 띠면서 이데서 오셨냐고 물어라" 그 글씨를 볼때 마다 그의 부친이 나의 미래를 알고 쓰신 글 같았다. 그리고 잊을수 없는 내 첫사랑이었던 그 불쌍한 여인 생각이 난다.

/ 화가 이야기 /

화가 김환기의 빛나는 작품세계

-한국적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한-



장소현(미대 65)

화가 김환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한국에서 가장 그림값이 비싼 화가"라고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미술작품 중 최고 가격을 기록하고 있는 <우주>의 경매 낙찰가격이 무려 130억 원이었고, 비싼 그림 10개 중 9개가 김환기 화백의 작품인 적도 있으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아니다.

하지만 작가에게는 그런 평가가 그다지 반갑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김환기는 생전에 그런 엄청난 그림값을 상상도 하지 않았고, 파리나 뉴욕에 살 때 매우 궁핍한 생활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림값이 비싼 것은 김환기의 작품이 그만큼 빼어나기 때문이다.

수화(樹話) 김환기(金煥基, 1913-1974)는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로 한국적 정서를 가장 개성적으로 잘 표현했고, 그것을 세계 화단에 당당하게 내놓은 대표적 화가로 평가받는다. 그래서 흔히 박수근, 이중섭과 함께 우리나라 '3대 화가'로 손꼽힌다.

그는 민족적 아름다움이 곧 세계적 아름다움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동양의 직관과 서양의 논리를 융합하고, 한국적 정서와 현대적 조형미를 조화시킨 작품세계를 펼쳤다. 김환기는 하나의 작품세계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를 추구하고 과감하게 도전한 열정의 화가다. 한국 화단에서의 명예와 대학교수라는 안정된 직장을 내던지고, 마흔 셋의 나이에 유럽 화단에 도전한 것이나 쉰 살의 나이에 뉴욕에 진출한 것 등은 그의 열정과 끝없는 도전정신을 말해준다.

그의 예술세계는, 타고난 재능도 물론 있었겠지만, 과감한 도전과 모든 것을 바친 피나는 노력의 산물이었다.

▲동양과 서양을 융합한 작품세계

김환기는 전 생애를 통해 일관된 주제의식을 갖고 작품을 했지만, 그 기법면에서는 구성, 반추상, 추상에 걸쳐 마치 동양의 피카소라 할 정도로 다양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변화과정은 치열하게 새로운 세계에 도전한 열정의 산물이다. 그는 일본 유학 시절에 이미 <론도> 같은 대담한 추상화로 주목을 받았다. 해방 이후에는 한국의 산이나 강, 달, 새, 꽃, 학, 사슴, 백자 항아리 등 한국적 서정과 아름다운 물씬한 소재들을 시적인 반추상화로 표현하여 독보적 작품세계를 확립했다. 이후 그의 화면은 점점 더 추상화 되어가다가, 드디어 뉴욕 시절에 전면 점화(全面點畫)라는 새로운 경지로 열매를 맺었고, 점화들이 그의 대표작이 되었다.



산, 1958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1970



론도, 1938

처음으로 소개된 점화 작품은 1970년 한국일보사 주최 한국미술대상전(韓國美術大賞展)에서 대상을 수상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라는 작품이다. 그는 일본 유학 시절에 이미 <론도> 같은 대담한 추상화로 주목을 받았다. 해방 이후에는 한국의 산이나 강, 달, 새, 꽃, 학, 사슴, 백자 항아리 등 한국적 서정과 아름다운 물씬한 소재들을 시적인 반추상화로 표현하여 독보적 작품세계를 확립했다. 이후 그의 화면은 점점 더 추상화 되어가다가, 드디어 뉴욕 시절에 전면 점화(全面點畫)라는 새로운 경지로 열매를 맺었고, 점화들이 그의 대표작이 되었다.

영원한 망향(望鄉)의 화가 김환기의 외로움과 그리움의 결정체인 셈이다. "내 작품은 공간의 세계란다. 서울을 생각하며 오만가지 생각하며 찍어가는 점. 어쩌면 내 맘속을 잘 말해 주는 것일까. 그렇게 외롭게 작업했던 것을, 못다 이룬 꿈을 세상에 알려 살려주고 싶다" 김환기 화백의 죽음 이후 김환안 여사는 고인의 작품을 모아 정리하고 관리하고, 김환기의 작품을 세상에 알리는 일에 일생을 바쳤다. 이를 위해 1979년에 환기재단을 설립해, 1992년에 환기미술관을 서울 부암동에 개관했다. 이는 한국 최초의 사비로 건립한 개인 미술관이다. 김환안의 본명은 변동림(東琳)이었는데, 결혼을 반대하는 가족과 연을 끊고 남편의 성을 따라 김환안으로 개명했다. 그렇게 사랑이 깊었다. 변동림은 천재시인 이상(李箱)의 아내였다. 경기 여고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영문과를 다니던 시절, 시인을 만나 결혼했으나 4개월 만에 사별했다.

공한 것이다. 그동안 그러은 자연의 질서를 하늘과 우주로 넓힌 그의 작품세계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점 하나하나를 반복하는 과정은 작가의 정신이 더욱 집중되는 과정을 의미하며, 진정한 나를 깨닫는 길이다" 화면 전체를 점으로 채운 작품에 대해 미술평론가 윤난지 교수는 이렇게 설명한다.

김환기는 정말 치열하게 그림을 그렸고, 쉬지 않고 새로운 세계를 탐구한 열정의 예술가였다. 뉴욕 시기에 전면 점화만 약 400여점을 그린 것으로 알려진다. 안타깝게도 그런 열정이 이른 죽음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김환기는 대작을 고집했고, 캔버스를 세우지 않고 눕혀놓고 구부정한 자세로 그렸다. 점화의 수목화 같은 번짐 효과를 위해서였다.

매일 몇 시간의 수면 시간 외에는 하루 온종일 수그린 자세로 그림을 그리는 무리를 거듭하다 보니 손에 마비가 오기 시작했고, 또 척추와 목에 무리가 심해져 결국 목디스크로 수술을 받게 되었다. 수술을 받고 회복 중 침대에서 떨어져 뇌일혈을 일으켜 1974년 향년 61세로 세상을 떠났다. 한창 왕성하게 활동할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이 너무도 안타깝다. 그렇지 않았다면, 세계적 거장의 반열에 우뚝 섰을 텐데...

▲부인 김환안의 헌신적 내조

오늘의 김환기 예술을 꽃피우는 데는 부인 김환안 여사(1916-2004)의 사랑과 열정적이고도 헌신적인 내조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한창때에 급사한 김환기 화백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불쌍했다. 김환기 화백이 그렇게 외롭게 작업했던 것을, 못다 이룬 꿈을 세상에 알려 살려주고 싶다" 김환기 화백의 죽음 이후 김환안 여사는 고인의 작품을 모아 정리하고 관리하고, 김환기의 작품을 세상에 알리는 일에 일생을 바쳤다. 이를 위해 1979년에 환기재단을 설립해, 1992년에 환기미술관을 서울 부암동에 개관했다. 이는 한국 최초의 사비로 건립한 개인 미술관이다. 김환안의 본명은 변동림(東琳)이었는데, 결혼을 반대하는 가족과 연을 끊고 남편의 성을 따라 김환안으로 개명했다. 그렇게 사랑이 깊었다. 변동림은 천재시인 이상(李箱)의 아내였다. 경기 여고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영문과를 다니던 시절, 시인을 만나 결혼했으나 4개월 만에 사별했다.



정상진(상대 59)

/ 세계여행 /

네팔에서 진도 7.8 지진 체험②

■ 위급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달린다

'지진상황이 심각하다'는 소리를 듣고서 야 호텔에 혼자 두고 온 아내가 생각난다. 라스베이거스 집을 나선지 20일이 가까우니 심신이 몹시 소진되어 아내는 하루 휴식하고저 관광을 나서지 않았다. 호텔건물은 안전한지? 아내에게 번고는 없는지? 처음 겪는 재난에 나(남편)의 걱정은 또 얼마나 하고 있을까?..

안내인에게 호텔방으로 통화를 부탁하니 수차례 시도에도 불통이다. 이제는 속히 호텔로 가는길 밖에 없다. 가는길에서 수시로 허물어진 집들이 보이지만 한 곳은 3,4층 제법 큰 건물이 폭삭 내려앉은 흙더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잔해를 뒤지고 있다. 대피하지 못한 인명을 구조하는 장면이다. 이 광경 앞에 서행하는 우리차 앞으로 한 주민이 차를 가로막아서며 두손을 합장하고 수차례 허리를 굽히고 절을 한다. 사연은 흙더미에서 구출한 아버지가 인사불성이나 속히 병원 이송이 필요한데 마침 우리차를 발견하고서 청탁을 하는 것이라고 안내인이 말을 전하면서 우리의 동의를 구한다. 환자(아버지)와 보호자(아들)를 태운 차는 혼잡한거리를 계속 경적을 울리면서 10여분 정도에 병원에 도달하였다. 한데, 이 병원이 '재난 집합소'이다.

땅이 흔들린지 불과 30여분인데 병원은 위급환자로 장사진을 이루어 병원입구에서부터 울타리 문을 지나 길거리까지 긴 줄을 만들고있다. 우리의 환자는 입구에서 하차를 시켰다. 환자가 누워 온 좌석에는 흙 먼지와 함께 피가 흥건히 고여있다. 극히 불길한 생각이 엄습해 온다.

■ 아내와 재회

호텔 도착 즉시 아내부터 찾았다. 마침 면식이 있는 직원이 보이기에 아내의 행방을 물으니, 모든 투숙객과 종업원이 건물 밖에 나와 있으니 가까이에 있을 것이라다. 주위를 두리번 거리는데 아내가 나를 먼저보고 달려온다. 아내의 얼굴이 그렇게 반가울수가 없다. 벌써 점심시간이 지나고 있으나 호텔에



①②희생자 발굴사진 ③무너진 집들

서는 점심식사를 어떻게하겠다는 통보도,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연락조차도 없다. 그저, 우리 안내인 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곧 식사조치가 있을것 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는지 어대선가 식빵 한덩어리를 구해와 잔디대에 펼쳐 놓고 점심요기를 하란다. 저녁식사는 7시에 식당앞 파티오에서 간단한 몇가지 음식으로 부페식으로 마련된다며 늦으면 음식이 동이 날수 있으니 꼭 빨리 가서 먹을 것을 당부한다. 네팔을 떠나는 날 아침 식사 까지, 다섯끼를 이런식으로 해결했다. 여진은 아직도 계속되나 해가지고 밖이 캄캄하니 방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심신이 피로하고 또 짐정리가 필요하다. 짐을 자다가도 진동이 심하면 건물을 벗어나야하니 아내와 나의 배낭에다 중요한 물품을 챙겨 넣었다. 밤 8시경 전기가 들어오고 수도물이 나왔으나 수도물이 붉은 황토색이라 세수는 할수 없고 겨우 변기에 사용할수 있는 정도였다.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전기와 수시로 찾아오는 여진 속에서 초조하고 불안한 가운데 이틀밤을 보냈다.

■ 카투만두 공항 폐쇄

지진 그 다음날, 아침식사 시간에, 어제가 침 일찍 작별인사를 했던 네팔관광을 마



치고 귀국한다는 여행객을 호텔에서 또 만났다. 웬 일이나고 물으니, '어제 오전 공항에 도착하여 낮 12시경 보딩패스를 받고 대기실에서 Delhi 행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지진이 일어나 공항이 폐쇄되니 착륙 예정이었던 비행기들은 공항 상공을 순회만 하다가 결국 착륙허가를 받지 못하고 인도 방향으로 돌아 가버렸다. 후, 탑승 기회가 있을가 싶어 오후 늦게까지 공항에서 대기 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고 밤늦게 호텔로 다시 돌아 왔다.'는 이야기이다. 말하는 그 여행객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다. 그런데 현실은 내가 남의 이야기를 들어 줄 정도로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우리 일행 세명은 과연 카투만두를 어떻게 탈출하나? 네팔 관광은 일찍 포기 했지만, 예정대로 내일 (4월27일) Delhi 행 비행기를 탈수 있을까? 안내인에게 문의하니 지금 시점에서 100% 보장할수 있는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네팔, 카투만두 공항을 잠깐 소개 하면, 이 공항은 해외에서 항공편으로 네팔에 입국 할수 있는 유일한 국제 공항이며 활주로는 단 하나뿐인 소규모 공항이다. 이 하나뿐인 활주로는 늘 문제가 되어 일년 전 즈음에는 민항기 한대가 안개가 낀 날씨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바위가 활주로 옆 구덩이에 빠졌다. 하나뿐인 활주로 중앙에 비행기가 처박혔으니 다른 비행기의 이착륙이 불가능 했다. 인도로 부터 기중기 장비가 도착하고, 사고 비행기를 옆으로 밀쳐 낼때까지만 이틀동안 공항이 폐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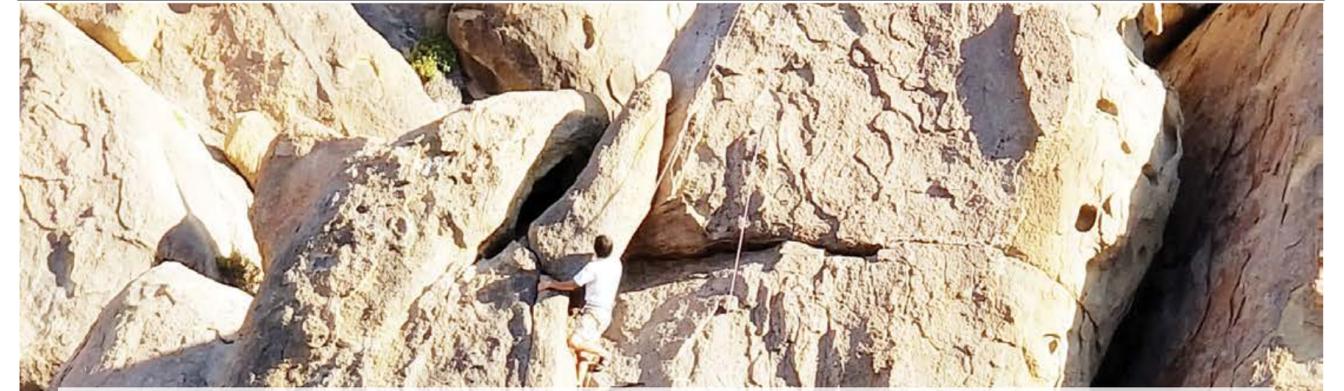
어제는 지진으로 인하여 공항이 폐쇄되었고, 오늘부터는 인도, 미국 등으로 부터 들어오는 구조물품과 구조대 그리고 구

조장비를 실은 비행기에 공항 우선권이 주어지니 민항기의 착륙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다행히도 우리 팀의 일정이 내일이니 내일은 공항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직은 우리팀 비행일정이 취소 됐다는 통보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을 안내인이 전한다.

어제는 지진으로 인하여 공항이 폐쇄되었고, 오늘부터는 인도, 미국 등으로 부터 들어오는 구조물품과 구조대 그리고 구

원고 모집합니다

-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외의 글, 레터용지 한장 반 이내
-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news@snuua.org 로 보내주세요.



박진국(의대 65)

/ 등산기 /

여기가 진짜 유토피아!

- 남加州 산악반 활동 -

Covid-19, 9개월 동안의 불안과 제한된 행동에 산불과 Protest까지 겹쳐, 닫혔던 Trail들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2개월 동안 Whitney Portal에서 Meysan Lake까지의 산행계획이 시작하는 첫날에 무산되며, 큰 실망으로부터 2박 3일의 여행이 "여기가 Utopia"로 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날, Whitney Portal 위로는 산행금지여서 Picnic Area에서 점심 후에 Lone Pine Creek Trail을 Meysan Creek이 만나는 아래까지 경사진 길을 걸으며 계곡물과 이른 단풍을 즐겼다. 대부분이 역사적인 Dow Hotel에 투숙하게되어 저녁 후 계획을 바꾸기로 했다. 소문에 의하면 Sierra Nevada의 이른 단풍이 터졌다. 둘째날, 아침부터 Alabama Hill West로 향했고 오후에는 Movieland가 있는 East로 정해졌다. 모든 대원이 김동근대장님 부부의 준비된 Rock Climbing계획을 따르기로 해서 Horseshoe Road를 돌아 'Gunga Din'에 도착했다. 이곳은 1939년 Hollywood Western Movie가 만들어

진 Setting 장소로 Cary Grant와 Jane Fontaine 주연인데, Indian Northwest Frontier때 Indian Native Hindu Water-Boy, Gunga Din의 Story를 따라 명명되었다. 기묘한 감자 바위들의 작은 지형인데 우리모두 Senior들의 대단한 의지로 52경사의 Rockpeak를 Belay 해가며, 또 바위에 굽히고 가시에 찢리며 올라갈 수 있었다. Whitney 산의 tip과 주위의 고산들의 이름을 나누며 모두가 산신들이 된 기쁨을 느꼈다. 오후에는 East Movieland로 가서 'Total Wall'에 있는 56의 'Nut' Rock Climbing이 highlight였다. 대장님의 Lead로 시작, 용감한 대원들의 Climbing은 불만했다. 특히 김인중 동문의 hopping climbing(소위 나무타기 style)은 인기만점으로 누군가가 'Nut Killer'라고 칭했다. 우리들 다음에 다시 꼭 옵시다. 덤으로 또 하나, Rock Top Hiking으로 Whitney와 Highway 395 views를 사진찍으며 즐겼다. 셋째날 소문대로 단풍이 터졌을까 기대하며 Bishop Creek로 나섰다. 고도 8000fts Aspended까지 아무 단풍도 보이지 않아 불안했으나 곧 화려한 단풍이 우리

를 반겨서 Sabrina Lake로 달려가 올해의 Red, Orange, Yellow의 Aspen잎에 입을 벌릴 수 밖에 없었다. 이어서 가장 현란한 풍경의 North Lake에 와서는 Granite와 Red Rock산과 lake 그리고 단풍의 Reflection을 사진찍느라고 시간가는 줄 몰랐다. 다음은 South Lake로, 2마일의 단풍이 Fall과 함께 너무 아름다웠고, 한가로운 강태공과 함께 점심 먹으며 가을바람도 즐겼다. 단풍이 이번 주말까지 갈까? 우리가 On time에 왔다. 마지막 여정은 Big Pine Creek, 여러번 왔지만 10월에는 처음이었다. First Fall, 짧은 South 그리고 North Forks의 Loop Trail은 정말 아름다웠다. Palisade Glacier까지 살짝 보이는데서 사진을 찍었다. South Fork에 발을 담구는 회원도 있었다. 가을 단풍이 광음의 물소리와 합쳐 여기가 이렇게 아름다웠나? Utopia다. Meysan Lake를 뒷날로 미루고 집으로 오는 밤길의 Drive는 낮에 본 현란한 단풍과 대조해, 잔인한 컴컴함이었다.

Rock climbing in Movieland, Alabama hill <사진촬영: 김인권(치대 72)>



North lake, Bishop <사진촬영: 최복철(공대 70)>

www.snuaa.org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3백만불 모금 캠페인

후원해 주신 동문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새겨질 나의 이름”
서울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미국내에서 최초의 면세혜택을 승인받은, 26개 지부 및 미주지역 2만여 동문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총 모금액 TOTAL

\$533,143

<모교발전기금 포함>

종신이사 (\$3,000) 명단

골드 이사 \$10,000 이상 실버 이사 \$6,000 이상

남가주 강신용 (사대 73) 권기홍(의대 60) 광운길(문리59)김경숙 (간호 68) 김동훈 (의대 71) 김보연 (간호 63) 김성호(법대 64)김재영 (농대 62) 노명호 (공대 61) 노재성 (법대 58) 박명근 (상대 63) 박윤수 (문리 48) 박중수 (수의 58) 박원준(공대53) 방명진(공대73) 서동영 (사대 60) 서영석(의대 55) 서치원 (공대 69) 심상은 (상대 54) 심화섭 (약대 61) 오재인 (치대 33) 오홍조 (치대 56) 이병준 (상대 55) 이세열 (사대 57) 이종도 (공대 66) 이창광 (의대 58) 임나균 (약대 64) 임용오 (의대 57) 전희택 (의대 60) 정동구 (공대 57) 정일현 (간호 72) 정재훈 (공대 64) 제영혜 (가정 71) 조용원 (문리 66) 차민영 (의대 76) 차중환 (사대 54) 하기환(의대 66) 한희택 (의대 68) 한효동 (공대 58) 박창규 (의대 59) 북가주 김정희 (음대 56) 손석보 (공대 68) 민병근 (공대 65) 전혜경 (문리 67) 뉴욕 김광호 (문리 62) 신응남 (농대 70) 오인석 (법대 58) 임나균 (약대 64) 임용오 (의대 57) 정희택 (의대 60) 정동구 (공대 57) 정일현 (간호 72) 정재훈 (공대 64) 제영혜 (가정 71) 조용원 (문리 66) 차민영 (의대 76) 차중환 (사대 54) 하기환(의대 66) 한희택 (의대 68) 한효동 (공대 58) 워싱턴 김광호 (문리 62) 신응남 (농대 70) 오인석 (법대 58) 임나균 (약대 64) 임용오 (의대 57) 정희택 (의대 60) 정동구 (공대 57) 정일현 (간호 72) 정재훈 (공대 64) 제영혜 (가정 71) 조용원 (문리 66) 차민영 (의대 76) 차중환 (사대 54) 하기환(의대 66) 한희택 (의대 68) 한효동 (공대 58) 미네소타 김관식 (공대 61) 남세현 (공대 67) 변우진 (인문 81) 조형준 (문리 62) 플로리다 김중권 (의대 63) 네바다 정상진(상대 59) 하트랜드 김경숙 (가정 70) 김명자 (문리 62) 이교락 (의대 53) 이상강 (의대 70) 메릴랜드 최지원 (의대 61) 휴스턴 박태우 (공대 64) 조시호 (문리 59)

일반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킹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종신 이사회비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 동창회의 재정자립을 위해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회비는 회보 발간 및 미주동창회 행사와 제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세제 혜택 및 기부안내

- 1)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1994년 12 델라웨어주에 비영리 법인 (IRC 501(c)(3))으로 등록되었으며
- 2) 미 연방국세청(IRS)로부터 미주 각지역 동창회를 대표하는 단체 면세법인 (Group Tax Exempt) 번호 3784를 취득하여 여러분의 후원금은 면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 또한 연방국세청법(IRC 2055, 2016 and 2522)에 따른 각종자산에 대한 유산 (Bequests, Legacies) 유증(Divises), 양도(Trensfers) 및 기증(Gifts)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 4) 미주 동창회 재정자립을 위한 3백만불 모금운동에 참여하실 분은 동창회로 문의해주시고 세금공제 혜택을 위한 법적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SNUAA-USA /E. Peter Shin, ESQ.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UL-2, Flushing, NY 11358
T 718-463-3131 E-mail: news@snuaa.org

www.snuaa.org

종신 이사비 (\$3,000 이상 / 109명)

(G) 골드 이사 오인석 (법대 58) 윤상래 (수의 62) 박창규 (약대 59)	서영석 (의대 55) 서치원 (공대 69) 심상은 (상대 54) 심화섭 (약대 61) 오재인 (치대 33) 오홍조 (치대 56) 이병준 (상대 55) 이세열 (사대 57) 이종도 (공대 66) 이창광 (상대 61) 이홍표 (의대 58) (S) 임나균 (약대 64) 임용오 (의대 57) 전희택 (의대 60) 정동구 (공대 57) 정일현 (간호 72) 정재훈 (공대 64) (S) 제영혜 (가정 71) 조용원 (문리 66) 노재성 (법대 58) 박명근 (상대 63) 박원준 (공대 53) 박윤수 (문리 48) 박중수 (수의 58) 방명진 (공대 73) 서동영 (사대 60)	북가주 김정희 (음대 56) 민병근 (공대 65) 손석보 (공대 68) 전혜경 (문리 67)	뉴욕 김광호 (문리 62) 신응남 (농대 70) 오인석 (법대 58) (G) 윤정옥 (약대 50) 이기영 (농대 70) 이전구 (농대 60) 이재덕 (법대 60) 이준행 (공대 48) 추재욱 (의대 57) 고애자 (음대 57) 강 애드워드(사대 60) 이재광 (상대 61) 최영태 (문리 67) 최수용 (상대 55)	뉴잉글랜드 고일석 (보건 69) 김문소 (수의 61) 박경민 (의대 53) 박영철 (농대 64) 오세경 (약대 61) 윤상래 (수의 62) (G) 윤선홍 (치대 64) 정선주 (간호 68) 정정옥 (의대 60) 정태영 (문리 71) 홍지복 (간호 70)	시카고 남상용 (공대 52) 심상구 (상대 63) 이용락 (공대 48) (S) 이재희 (치대 67) 장윤일 (공대 60) 정 태 (의대 57) 최의필 (의대 53) 한재은 (의대 59)	루이지애나 강영빈 (문리 58) (S)	미네소타 김관식 (공대 61) 남세현 (공대 67) 변우진 (인문 81) 조형준 (문리 62)	플로리다 김중권 (의대 63)	하트랜드 김경숙 (가정 70) 김명자 (문리 62) 이교락 (의대 53) 이상강 (의대 70)	휴스턴 박태우 (공대 64) 조시호 (문리 59)	[종신 이사 구분] (D) 다이아몬드 이사 \$100,000 이상 (P) 플래티넘 이사 \$50,000 이상 (G) 골드 이사 \$10,000 이상 (S) 실버 이사 \$5,000 이상 [카네기 음악회 순수익금] (6/22/19) \$6,637.55
--	--	---	--	--	---	--------------------------	--	---------------------	--	-----------------------------------	--

12월 후원자	*종신이사 권기홍(의대 60) 장운일(공대 60) 고병은(문리 55) 이재희(사대 67) 김성호(법대 64)
이승훈(상대 74) 권기홍(의대 60) 차수만(약대 71) 전경배(의대 75) 한재은(의대 59) 강길중(약대 69)	
변광록(간호 72) 류재은(미대 71)	
*\$500이상 후원자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후원금 (1,2차 회기: 2019. 7. 1 ~ 2021. 6. 30)

전희장단 이월금 (6/23) 30,000 (10/31) 27,365.02	광고비 이승훈(자연나라) 2,400 (12/18/20) 3,600 김관식(EVS) 1,500 (10/18/20) 1,500 이병준(Seah) 1,500 키스프로덕트 1,500 (1/8/20) 1,500 정재훈(공대 64) 480 강신용 (사대 73) 240 김원탁 (공대 65) 240 이경희 (인문 83) 240 정세근 (자연 82) 240 강호석 (상대 81) 240 박희진(농대 78) 480 장 준(인문 85) 480 백승원 (의대 73) 240 서동영 (사대 60) 240 석창호 (의대 66) 240 손재욱 (가정 77) 240 신종국 (수의 76) 240 엄달용 (공대 69) 240 유창호 (약대 74) 240 이경림 (상대 64) 240 이병준 (상대 55) 240 이준영 (치대 74) 240 이종묘 (간호 69) 240 이창석 (의대 72) 240 김원철 (농대 70) 240 엄동해 (농대 74) 240 김원탁 (공대 65) 240 이창도 (공대 66) 240 차민영 (의대 76) 240	이소희 (의대 61) 250 임창희 (공대 73) 200 김순자 (치대 57) 100 김정화 (의대 56) 25 박수영 (농대 53) 25	유기정 (간호 72) 100 황현상 (의대 55) 100 문성인 (공대 88) 100 한성수 (의대 54) 50 이규만 (문리 61) 25	박평일 (농대 69) 200 송용길 (신문 69) 150 유성은 (의대 88) 1,300 유시영 (문리 68) 300 윤봉수 (간호 69) 100 한태진 (의대 58) 500	박재은(미대 63) 100 오 성(법대 76) 100 우규환(사대 60) 100 이성숙(공대 56) 100 장수영(미대 70) 100 조화연(음대 64) 100 최형무(법대 68) 100 서울 총동창회 5,000	모교발전기금 남세현 (공대 67) 2,000 윤우용 (공대 63) 1,000 곽선섭 (공대 61) 500 박원준 (공대 53) 500 오인환 (문리 63) 300 최재귀 (미대 63) 300 심상은 (상대 54) 200 김영자 (간호 53) 100 권철수 (의대 70) 100 오석일 (의대 64) 100 윤인숙 (간호 63) 50	브레인 네트워크 후원금 한재은 (의대 59) 300 전방남 (상대 73) 200 오인환 (문리 63) 200 이재진 (문리 85) 100 이범식 (공대 61) 50	29차 평의원회 후원금 정재훈(공대 64) 2,000 박중수(수의대 58) 1,000 신용남(농대 70) 1,000 노명호(공대 61) 500 박평일(농대 69) 500 윤상래(수의대 62) 500 지흥민(수의대 61) 500 곽선섭(공대 61) 300 김중용(사범 51) 300 연봉원(문리 61) 300 김중용 (사대 53) 300 오인환(문리 63) 300 박상원(음대 69) 220 오인환(문리 63) 200 민병갑(문리 63) 200 백 순(법대 58) 200 백옥자(음대 71) 200 손재욱(가정 77) 200 이강원(공대 66) 200 정태영(문리 71) 200 주기목(수의대 68) 200 조정현(수의대 58) 125 지흥민(수의대 61) 100 김동희 (공대 66) 100	카네기음악회 후원금 신용남 \$16,947.74 서울 총동창회 3,000 뉴욕지역 동창회 2,000 뉴욕지역 골든클럽 2,000 이만택 (미주재단) 4,500 강애도 (사대 60) 500 곽선섭 (공대 61) 300 권문용 (미대 61) 200 김광호 (문리 62) 1,000 김승호 (공대 72) 2,000 김중용 (사대 53) 300 김해원 (의대 52) 1,000 노명호 (공대 61) 1,000 노용만 (의대 48) 100 민준기 (공대 59) 300 박영철 (농대 64) 2,000 정선주 (간호 68) 200 박윤수 (문리 48) 1,200 박중수 (수의 58) 1,000 박희병 (치대 63) 200 백승원 (의대 73) 1,500 석창호 (의대 66) 400 선종철 (의대 57) 200 성기호 (사대 57) 200 손재욱 (가정 77) 500 송용길 (대원 69) 500
--	--	---	---	--	---	--	--	--	--

남가주 CA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rp.
김경무 (공대 69)
T: 213-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 LA,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사대 73) 공인회계사
T: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 213-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 LA,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t.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 81)
T: 213-380-5060 (LA, CA)
T: 714-530-3630 (Garden Grove, CA)

JUN CHANG CPA & Accounting Corp.
장 준 (인문 85)
T: 818-722-2811
11145 Tampa Ave. Suite 26A Northridge, CA 91326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 818-772-2811, 213-272-2460 / jun@junchangcpa.com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임춘택 공인회계사
임춘택 (상대 68)
T: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김원철 & 황기주 공인회계사
김원철 (농대)
T: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권국원 공인회계사
권국원 (공대)
T: 213-480-0070 / kkwuncpa@yahoo.com
869 Irolo St., LA, CA 90005

기계 / 기술 / 전자
Link TV Media
김원탁 (공대 65)
O: 818-514-6780 / 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linkboxusa@gmail.com / www.linkboxusa.com

Turbo Air, Inc.
서치원 (공대 69)
T: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 714-952-2240 / jchung@taycoeng.com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www.taycoeng.com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변호사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한태호 (인문대 75)
T: 213-639-2900 / F: 213-639-2909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CA 90010
www.haanlaw.com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 213-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A, CA 90010

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
이경희 (인문대 83)
T: 213-385-IMIN (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A, CA 90010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이종묘 (간호대 69), Jennie Lee
T: 714-396-0624 / jenniecee@gmail.com
30 Corporate Park, Suite 207, Irvine, CA 92606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해태 USA (Haitai Inc.)
정정우 (수외대 74)
T: 323-890-0101
7227 Telegraph Rd., Montebello, CA 90640

복창동 순두부
이태로 (법대 50)
B) (213) 382-6677
357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의료 / 병원
Seoul Medical Group
차민영 (의대 76)
T: 213-480-7770
520 S. Virgil Ave., #507, LA, CA 90006

VIP 성형외과
최광휘 (의대 70)
T: 323-965-1717 / F: 323-965-1855
4160 Wilshire Blvd., 2nd floor, LA, CA 90010
akchoi52@gmail.com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 213-386-5002 / drcchung@yahoo.com

2528 W.Olympic Blvd., #103, LA, CA 90006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 323-662-1175 / www.beverlycardiology.com
3919 Beverly Blvd., #100, LA, CA 90004

정수만 암내과, 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 714-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의료 / 약국
나성 약국
임낙균 (약대 64)
T: 213-387-3030
3030 W. Olympic Blvd., #118, LA, CA 90006

의료 / 치료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 408-732-0493
877 W. Fremont Ave. #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 213-365-1008 / ddsstp@yahoo.com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의료 /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외대 76)
T: 714-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외대 66)
T: 909-627-0951 / 909-627-0715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외대 67)
T: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 (수외대 64)
T: 951-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유통 / 운송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이병준 (상대 55)
T: 949-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Mirae Asset Wealth Mgmt. (USA) Inc.
최경석 (사대 80)
D: 213-262-3805 / M: 213-952-9911
3701 Wilshire Blvd., Suite 101, LA, CA 90010
kyungsuk.choi@miraeassetusa.com

기타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 714-641-4730
2098 S. Grand Ave., Suite A, Santa Ana, CA 92705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곡원 (공대 65)
T: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B: 909-882-3800 / C: 714-323-8612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뉴욕 NY-NJ
공인회계사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 212-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http://klcpagroup.com/klcpa/

리테일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 212-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www.nygolfcenter.com

변호사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 (농대 70)
T: 718-463-3131 / petershinesq@gmail.com
158-14 Northern Blvd., 2FL, # UL-2, Flushing, NY 11358

금융
Edward Jones Investments – Financial Advisor
윤이규 (상대 82)
T: 201-978-7055
560 Sylvan Ave suite 3270, Englewood Cliffs, NJ 07632
edwardek.yun@edwardjones.com

의료 / 병원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 (의대 73)
T: 201-302-9774 / 732-744-9090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 (의대 66)
T: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이창석 내과
이창석 (의대 72)
T: 718-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박범렬 소아과
박범렬 (의대 75)
T: 718-229-1188 / 718-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박중호 소아과
박중호 (의대 79)
T: 201-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윤세웅 비뇨기과
윤세웅
T: 718-335-3333
75-21 Broadway, Flushing,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LIC HOTEL / 뉴욕스파 앤 사우나
김승호 (공대 71)
T: 718-463-0001
44-04 21st Street. Queens NY 11101
jeewha@hotmail.com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 (의대 73)
T: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김승관 통증 및 재활의학 병원
김승관 (의대 70)
T: 718-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의료 / 치료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 201-750-0011
570 Piermont Rd. Closter Plaza, Closter, NJ 07624

의료 /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외대 81)
T: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유통 / 내일제품
Kiss Products, Inc
김광호 (문리 62)
(516)625-9292/ (516)625-5599/1962
57 Seaview Blvd. Port Washington, NY 11050
www.Kissusa.com / cfo@kissusa.com
워싱턴 DC MD-VA-MN

기계 / 기술 / 전자
Drivotech, Inc.
업달용 (공대 69)
T: 703-489-2474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otechinc.com

김권식 (공대 61)
T: 612-961-6878
10025 Valley View Rd Ste 140, Eden Prairie, MN 55344
www.EVS-ENG.com

식품 / 음식점
우래옥
백행남 (문리 60)
T: 703-827-7300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www.woolaoak.com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O: 703-663-8400 / C: 703-785-8467
7023 Little River Tpke., #403, Annandale, VA 22003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옥현 (경영대 84)
T: 301-279-6969
15400 Calhoun Drive, Suite 120 Rockville, MD 20855
www.faclloan.com

필라델피아 PA
건축

Timothy Haahs & Asso.
손재욱 (생활과대 77)
T: 484-342-0200
550 Township Line Rd., #100, Blue Bell, PA 19422
www.timhaahs.com

의료 / 치료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 610-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식품 / 음식점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 (공대 61)
T: 267-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오레곤 OR
엔지니어링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 503-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www.flonomix.com

기타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육 센터
서울대 언어교육원
T: 82-02-880-5488
kjp@snu.ac.kr

✂.....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 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200 <input type="checkbox"/> \$500 <input type="checkbox"/> \$1,000 <input type="checkbox"/> \$ _____	<input type="checkbox"/> \$75 (2020. 7 ~ 2021. 6) <input type="checkbox"/> \$150 (2020. 7 ~ 2022. 6) <input type="checkbox"/> \$3,000 (중신이사회비)	<input type="checkbox"/> \$240 (2020. 7 ~ 2021. 6) <input type="checkbox"/> \$480 (2020. 7 ~ 2022. 6) 일반 광고 문의: news@snuua.org	<input type="checkbox"/> Scholarship Fund (장학금) \$ _____ <input type="checkbox"/> Charity Fund (나눔) \$ _____ <input type="checkbox"/> Brain Network 후원금 \$ _____ <input type="checkbox"/> 모교발전기금 \$ _____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 는 동창회 자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 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킹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중신 이사회비 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 에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 과 동창 회비 는 회보 발간 및 미주동창회 행사와 제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동문님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Total: \$_____. Make check payable to SNUAA-USA.			
보낼 곳: SNUAA-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 Suite UL-2 Flushing, NY 11358 Tel: 718-463-3131 Email: news@snuua.org <보내주시는 회비 및 후원금 합계가 \$250 이상 되시는 동문께서는 영수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글이름:	영문이름:	단체대:	입학연도: 지부:
E-mail:		Cell Phone: *주소가 바뀔경우에만 기입 바랍니다.	
주소:			

미주 동창회보는 미주 동문의 역사 기록입니다.

제15대 미주동창회

역대회장
박윤수 (문) · 강수상 (의) · 이병준 (상) · 오인석 (법) · 이용락 (공)
오홍조 (차) · 이영목 (공) · 이진구 (농) · 송순영 (문) · 김은중 (상)
오인환 (문) · 손재욱 (가정)
명예회장: 윤상래 (수)

제15대 회장: 신응남 (농)
고문: 박중수 (수), 주중광 (약)

차기회장: 노명호 (공)
Brain Network 공동 위원장: 하용출 (문), 이강원 (공)
Brain Network 공동 부위원장: 조달훈 (사), 박영철 (농)
Corporate Counselor: 최형무 (법)

집행부
사무총장: 연영재 (공)
총무 국장: 문현호 (음), 간사: 이지희
재무 국장: 한경진 (음)
IT 국장:
업무 국장: 연영재 (공)
섭외 / 홍보 국장: 유시영 (문)
조직 및 광고국장: 백옥자 (음)
문화 국장: 홍선례 (음)

회보 발행인: 신응남 (농), 편집인: 오치주 (농)
편집 고문: 광상희 (문), 이희만 (간)
편집장: 박정원
편집 위원: 추재욱 (의), 최철용 (농), 최한용 (농), 연봉원 (문)
송용길 (신문), 조달훈 (사), 최형무 (법), 이수호 (보)
백옥자 (음), 홍선례 (음), 문현호 (음), 한경진 (음)

지역 기자단: 홍선례 (LA), 백옥자 (LA)

논설 위원장: 이항렬 (법)
논설 위원: 김 영 (수), 김해암 (의), 정태영 (문), 박평일 (농), 고병철 (법), 백 순 (법), 장동만 (문), 김창수 (약), 민경훈 (법), 유재종 (법), 연봉원 (문), 이채진 (문), 장석정 (법), 정홍택 (상), 조동준 (의), 차민영 (의), 최용완 (공), 하용출 (문), 김홍욱 (문), 김재훈 (공), 김지영 (사), 최형무 (법), 이종호 (인)

회칙 위원회: 위원장 김병연 (공)
회칙위원: 김병연 (공), 김용현 (상), 서종민 (공), 이강원 (공), 조정현 (수), 이민연 (법), 한재은 (의), 함은선 (음)

미주동창회 후원위원회: 위원장
회관 건립 연구 위원회:
회보 개선 위원회: 위원장 주기목 (수)
나눔 위원회: 위원장 황선희 (공)

동창회 운영기금 century foundation 관리 위원회: 위원장 손재욱(전회장)

장학 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농), 부위원장: 김승호 (공)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전회장), 윤상래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강에드워드 (사)

포상 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회장)
위원: 각 지부 회장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회장)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전회장), 윤상래 (직전회장)
감사: 김명승 (상), 강호석(상)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지역	이름	전화	Email	회계연도
남가주 S.CA/NV	회장	민일기 (약대 69)	562-547-2110 davidmin920@gmail.com	Feb-Jan
	차기회장	최용준 (수의대)	818-450-7868 yongjunechoi6080@yahoo.com	
북가주 SAN FRANCISCO	회장	임준원 (공대 77)	408-220-4260 joonwlim@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최승희 (사회 81)	408-313-4239 shechoi01@gmail.com	
뉴욕 NY/NJ	회장	조상근 (법대 69)	201-913-0565 amcoinc@msn.com	July-Jun
	차기회장			
뉴잉글랜드 MA/RI/NH/ME/VT	회장	김정선 (문리 66)	617-780-7205 jkim@systemic.com	Jul-Jun
	차기회장	김유경 (음대 72)	781-223-4411 YkimLC@yahoo.com	
북텍사스 LA/DALLAS	회장	강성호 (수의 81)	214-215-4447 oah9999@yahoo.com	Jan-Dec
	차기회장			
록키마운틴스 MT/CO/WY/NM	회장	최용문 (공대 77)	ymcgreencorp@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미네소타 MINNESOTA	회장	차재호 (농공학 84)	651-769-5343 jaehocha@yahoo.com	Jan-Dec
	차기회장	용정식 (농화학 86)	610-952-3673 jyong@umn.edu	
샌디에고 SAN DIEGO	회장	유재호 (공대 90)	469-387-7922 blue9071@gmail.com	Nov-Oct
	차기회장			
시카고 IL/IN/WI/MI	회장	장윤일 (공대 60)	630-305-8792 ychang@anl.gov	Jan-Dec
	차기회장	김윤하 (공대 66)	847-726-0528 yunhakim@comcast.net	
애리조나 ARIZONA	회장	오윤환 (공대 56)	520-271-2601 youn.oh@gmail.com	
	차기회장			
앨라스카 ALASKA	회장	윤재중 (농대 55)	907-223-0887 jaejyoon@hotmail.com	
	차기회장			
오레곤 OR/ID	회장	전병택 (상대 65)		Jan-Dec
	차기회장		bryanchon@gmail.com	
오하이오 OHIO	회장	이성우 (상대 72)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차기회장			
워싱턴 DC DC/MD/VA/WV	회장	박상근 (법대 75)	703-425-9390 sangkuenpark@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워싱턴 주 WASHINGTON	회장	이명자 (간호 74)	drmalee@gmail.com	Jan-Dec
	총무	임현민 (공대 84)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유타 UTAH	회장	김한섭 (공대 93)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Jan-Dec
	차기회장			
조지아 GA/AL/MS	회장	이영진 (공대 76)	404-579-8282 youngjinlee9999@gmail.com	
	차기회장	김재호 (공대 80)	404-372-2621 jhros@gmail.com	
중부텍사스 MID-TEXAS	회장			
	차기회장			
필라델피아 PA/DE/S.NJ	회장	지홍민 (수의대 61)	215-512-9510 hmchi8760@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이성숙 (가정 74)	610-417-4789 ssh1120@gmail.com	
플로리다 FLORIDA	회장	최희덕 (사대 68)	973-610-5857 lee07073@hotmail.com	Jan-Dec
	차기회장			
캐롤라이나 SC/NC/KY	회장	지원식 (공대 85)	919-913-5570 wschee@gmail.com	
	차기회장			
커네티컷 CT	회장	유시영 (문리 68)	203-305-3910 t60syu@gmail.com	
	차기회장	박용해 (상대 83)	203-767-8187 yhpax@gmail.com	
테네시 TENNESSEE	회장	김상호 (공대 86)	856-386-1094 kimsh@ornl.gov	Jan-Dec
	부회장			
하와이 HAWAII	회장	성낙길 (문리 77)	808-956-2611 nsung@hawaii.edu	Jul-Jun
	총무	전수진 (석공 89)	808-956-8283 soojin@hawaii.edu	
하들랜드 IA/MO/KS/NE/AR/OK	회장	이지현 (약대 77)	913-814-9452 leeche@umkc.edu	Sep-Aug
	차기회장			
휴스턴 HOUSTON	회장	구자동 (상대 70)	713-206-1041 jykey2003@yahoo.com	Jan-Dec
	부회장			
캐나다 밴쿠버	회장	조석기 (상대 71)	skeycho@gmail.com	Jan-Dec
	부회장		skeycho@gmail.com	
캐나다 앨버타	회장	정종기 (공대 70)	403-617-7585 movics@shaw.ca	Mar-Feb
	부회장			

www.taycoeng.com

Tayco Engineering, Inc

Our product lines
Flexible Heaters/ Flexible Cable
High Temperature Metallic Heaters
Temperature Sensors/ Spacecraft Subsystems

정재훈 (공대 64)

T: 714-952-2240 / jchung@taycoeng.com/ 10874 Hope St. PO Box 6034, Cyress, CA 90630

jayone.com

한인대표 식품기업 자연나라로 성장 하겠습니다!

www.jayone.com

Since our founding in 2000, Jayone Foods, Inc. has always maintained the sole mission of sharing our passion for Asian Food - especially Korean food. With so many bold flavors, vivid colors, and countless health benefits, it would be a shame not to spread the word far and wide! As the first company to introduce the idea of enjoying seaweed as a snack, we take pride in our innovation and are always thinking of new and unique ways to bring delicious foods to your table.

In the 18 years since our humble beginnings, Jayone has developed over 700 different food items ranging from fresh produce to frozen goods and you may already be familiar with some of our other brands such as Sea's Gift and Jayone! In addition to our own brands, we've also partnered up with many other brands in our journey to spread the goodness of Asian foods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we believe that good food is a universal language that everyone can relate to and enjoy no matter who you are.

Tel: 562-633-7400 대표: 이승훈 (상대 74)

Fairway Asset

INNOVATION CONTINUES

업계 최고수준을 반영하는 정직과 전문성을 갖춘 최고의 용자전문회사입니다.
Fairway Asset은 모기지, 그 이상의 전문업체입니다.

남옥현 (경영대 84)

Fairway Asset Corporation
15400 Calhoun Drive, Suite 120
Rockville, MD 20855

(301) 279-6969 (Office)
(301) 279-6968 (Fax)

info@facloan.com

www.facloan.com

MAKE THE WORLD BEAUTIFUL.



SeAH

SeAH STEEL AMERICA, INC.

회장 이병준(상대 55)

2100 Main St. Suite 100
Irvine, CA 92614
(949) 655-8000

